

## 제15대 회장에 신응남 동문 취임

제28차 평의원회의 뉴욕에서 성황리에 개최, 차기 회장에 노명호 (공대 60) 동문 당선



윤상래 전회장, 신응남 회장, 노명호 차기회장



취임 선서를 하는 신응남 신임회장

### 미주동창회 새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  
Suite UL-2, Flushing, NY 11358

Tel: 718-463-3131  
Fax: 718-463-6789  
news@snuaa.org



신응남 (농대 70)

### 취임사

미주에 계신 존경하는 2만여 동문 여러분,

15 대 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하게 되니 회장으로서 감당 해야할 그 책임의 무게가 엄습함을 느낍니다.

본인은 앞으로, 마치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젊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통해 그들과 소

통하고 진리를 추구하였 듯이, 또한 동양의 제자 백가들이 제자와 위정자들에게 문답을 통해, 그들에게 인 의 예 지 덕을 세우는 국가를 주문 했듯이, 각지부를 대표하는 여러 임원들과 소통하며, 동창회의 미래에 가야할 방향을 의논하려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동창회의 지난 사반세기의 역사를 살펴보며, 내일의 우리 동창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입니다.

20세기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 문명의 역사는, "끊임 없는 도전에 대한 응전의 연속이다" 정의 했으며 한 때 찬란했던 문명도 그 문명에 다가온 도전에 대한 적절한 응전을 준비치 못 했을 때에, 멸망할 수 밖에 없음을, 잉카와 마야 문명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을에 이웃나라의 유명한 학자가 찾아 왔습니다.

그 마을의 대표가 그 학자를 안내하여 안보 상태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변방을 돌아보니, 어떤 곳에는 많은 병사들이 들어 차 있는 진지와, 각종 무기의 나열, 그리고 높은 방어 벽이 쳐져있었습니다. 시찰이 끝난후 그를 데리고 숙소로 돌아 왔을때 학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가를 보지 못 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병사가 아니라 학교입니다. 왜 나를 제일 먼저 학교로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하며 마을 대표를 깨우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갈피마다 슬기롭던 우리의 서울대학교, 만년 웅비의 새 터전,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 영원한 생명의 터전, 누가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라고 읊었던 어느 시인의 노래처럼, 든든히 서가는 모교를 위해 우리 마음 속 식어가는 첫사랑의 열정을 다함께 일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26개의 각 지부를 방문하겠으며, 지부를 도와 새로운 동

문을 발굴하며, 동창회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분기별 노력의 결실을 위한 평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미주 동창회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각 지부의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후원을 할 것입니다. 새 회원 영입, 기금모금 추진, 각 지부 회원 주소록 발간, 세미나 개최 그리고 장학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회보 편집도 각 지역이 적극 동참하는 동창회보가 되도록 하겠으며, 현 회칙에 따라, 회장 유고시 승계해야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16대 차기 회장과 함께 의논하여, 동창회가 추진하는 계획들이 차기 회장단에 의해, 계승 발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먼 지역 상의 거리에도 불구하고, 이번 평의원 행사와 케네디 음악회에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신 각 지역 동창회 임원과 동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룩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PRESORT STANDARD  
U.S. POSTAGE PAID  
LEHIGH VALLEY, PA 18002  
PERMIT NO 378

###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아래의 주소로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제28차 미주 평의원회, 제14대 회장 이임사, 제16대 회장 당선인 당선 소감



윤상래 (수의 62)

제14대 회장 이임사

존경하는 미주 동창회 평의원님

2년 전 이 자리에 서 있던 것이 어제 같습니다. 저희 회장단은 2년 전 미주 동창회 기금 육성을 위한 재단 설립을 제의하고 평의원님들의 찬성으로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을 설립했습니다. 작년에는 세부 회칙도 만들어서 법적인 토대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모금 운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76명의 종신이사님을 모셨고 27 만불 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계획하는 3백만불은 아직도 멀지만 동문님들께서 미주 동창회 장래를 우려하고 인식하는 날 그 목표액은 어렵지 않게 달성되리라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금 육성에 참여하고 도움을 주십시오. 저는 우리의 동창회보를 웹사이트와 함께 발행하기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자금,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앞으로의 미디어 추세를 보면 종이신문은 그 인기나 효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전자 신문이나 웹사이트로 우리의 회보가 전달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한 투자와 발전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우리 미주 동창회는 엄청난 지적 자산(Intellectual Property)이 있습니다. 많은 동문들이 세계적인 수준에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을 발굴하여 모교의 세계화를 도울 수 있다면 이는 졸업생으로서 가장 가치있는 일입니다. 신임 오세정 총장님께서도 미주 동문들과 협조를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지난 2년간 MIT 강당에서의 소규모 브레인 네트워크 세미

나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 최초의 목적인 "미주 동창회 THINK TANK" 가 탄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회관 건립 연구에 대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서울의 총동창회의 본보기를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이사를 세번 하면 집안 망한다"는 말은 옛말로만 여기기에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매 2년마다 이사를 하면서 동창회의 확고한 기반이 굳혀 질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굳건한 기반을 위해서라도 회관 건립을 위한 진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지난 2년간을 건강도 좋지 않았는데도 연구를 하여 오신 김병연 위원장님과 한귀희 부위원장님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창회는 이처럼 봉사하시는 동문, 임원님들이 있는한 영구한 발전을 할 것입니다.

제가 2년의 임기를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상운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감사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 할분들은 바로 여러 평의원님, 동문들이십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성심의 응원으로 우리의 자랑스런 미주 동창회를 이끌어 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15대 신응남 회장님께서 이 순간부터 미주 동창회를 이끌어 되십니다. 우리가 선출한 우리의 리더이십니다. 제게 보여주시신 성원과 후원을 신임 회장님께 기도 아까지 마시고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명호 (공대 60)

제16대 회장 당선 소감

부족한 저를 16대 회장으로 선출해주신 평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대 미주 동문들에게 간단히 저를 다시 소개하면 저는 1965년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일하다가 1971년 3월에 도미해 UC Berkeley에서 1972년에 석사학위를 받고 1973년부터 지난 45년 동안 Civil Engineer로 일을 했습니다. Business Management 경험으로는 1979년에 LEE & RO, Inc. (WWW.LEE-RO.COM) 라는 Water Infrastructure 설계용역회사를 창업해 40년 동안 운영하다가 2018년 10월에 회사를 직원들에게 넘기고 은퇴했습니다. 저는 서울대 동문들 특별히 남가주 동문들과 교제해온 지 40여 년이 되었고 지금도 동창회에 참여하면서 많은 선후배 동문들과 보람 있는 만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마의 변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전임회장님들이 숙고하여 시작한 Program 들을 계속 진행하며 전임회장님들의 의견을 구하고 전임 회장님들의 충고를 들었습니다. 물론 Program들에 관해 평의원님들과 동창회원들 특히 지역 동창회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방향을 논의할 것입니다. 저는 미주동창회가 당면하고 있는 다음 네 가지 Issue들을 심도 있게 다룰 생각입니다.

동창회 활성화

동문 참여 감소는 미주동창회 Sustainability에 관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동창회에 관심이 없는 선배 동문들과 참여를 주저하는 젊은 동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미주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에 걸맞는 행사나 Program 도 개발하고 Sponsor 도 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80, 90, 00 학년 동문들이 미주와 지역 동창회를 Lead 하도록 모든 동문들이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동창회와 소통

저는 지역 동창회 특히 작은 지역 동창회들과 Communicate하며 연결하는 미주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역 동창회 행사에 참여하며 특별히 작은 지역 동창회의 원고와 소식들을 동창회보에 더 많이 할당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동창회 기금 모음 활성화

지금까지 전임 회장님들이 많은 노력으로 동창회 기금이 조성되어가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기금 규모는 아직도 미약합니다. 저는 동문들에게 Fund Raising 홍보를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우리 동문들이 이제 미국에 터전을 마련해 가고 있으니 American으로서의 Giving Culture를 만들어가는 과제를 위해 동창 회원을 모두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교 서울대와 서울총동창회와 교류

저는 모교와 모교 동창회와의 연결고리를 더 튼튼히 하는 것이 미주동창회장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미주동창회는 미주재단의 Fund Raising Activity에 참여해 모교를 돕고 모교와 서울 모교동창회는 미주동창회가 자리잡는 일에 Meaningful 하게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저는 모교 및 모교동창회와 소통하고 교류할 계획입니다.

솔직히 저는 61학번 고희(?)이어서 동창회장 출마를 상당히 주저했지만 요즘은 Donald Trump, Joe Biden, Bemy Sanders를 보며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의 당선 소감과 저의 포부를 요약합니다. "저는 80, 90, 00학번 동문들이 Lead하는 동창회, 작은 지부 동창회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미주동창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서울대 미주 동문들과 평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28차 평의원회의 기조 연설>

북핵 협상과 한반도의 장래



조태열 (법대 79년 졸업) 주 UN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

1. 인사말

미주지역에 흩어져 살고 계시는 서울대 동문 여러분들이 모처럼 함께 모이는 이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소 늦었지만 오세정 총장님과 신수정 총동창회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두분의 리더십 하에 모교가 더 큰 도약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신응남 미주동창회 회장님도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세 분 뿐만 아니라 박윤수 초대 미주동창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미국 땅에서 수많은 역경을 헤쳐 가며 마침내 꿈을 이루시고 후배들이 주류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선후배 동문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관악산 캠퍼스 1세대입니다. 1975년 이른 봄, 이제 막 조성되어 웬지 행해게만 느껴지던 관악 캠퍼스 한가운데 아크로폴리스의 질퍽질퍽한 잔디밭 위에서 입학식을 치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느덧 교정을 떠나 외교관의 길을 나선지 만 40년이 되었습니다.

2. 들어가는 말

동문 여러분, 요즘 국내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 외교의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우리 외교의 주요 현상의 하나인 유엔을 지키고 있는 최고참 외교관으로서 저 자신 무거운 책임감과 큰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서울에서 외교 차관을 지낸 3년 8개월과 주유엔 대사를 맡아 이곳 뉴욕에서 동문서주한 2년 반을 포함한 지난 6년여의 세월은 우리 외교가 얼마나 엄중한 환경 속에 놓여 있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국익을 지켜내고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절감한 시간이었습니다. 과거 냉전체제 하에서는 진영논리에 따라 단 순방정식으로 풀면 모든 외교 현안들이 쉽게 정리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외교 안보 현안 중 그 어느 하나도 1차방정식으로는 풀리는 것이 없을 만큼 우리 외교는 종종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주유엔 대사로 지낸 지난 2년 반은 제 40년 외교관 생활에서 가장 특이하고 도전적인 경험을 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북한의 끝없는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6.25 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 북한을 변화의 길로 유도해내기 위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와 압박 조치를 이끌어낸 무대도 유엔 안보리였고, 벼랑 끝에서 대화와 협상으로 극적인 전환을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마치 조였던 자전적 브레이크를 잡

시 풀었다 다시 조이듯이 제재 면제를 통해 남북 대화와 교류에 윤활유를 제공한 것도 유엔 안보리였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실이 고스란히 투영되는 유엔 외교의 현장에서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 결의를 연이어 채택하고,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 국면으로의 극적인 상황 변화에 맞추어 주변국들의 이해와 동의를 확보하면서 제재와 대화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외교적 판단과 교섭 능력에 부족함이 있어 자칫 일을 그러치게 되면 곧바로 우리의 핵심 외교 정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늘 긴장감 속에 지내 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가 엄연히 작동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정부

"북한은 이미 비핵화라는 이름의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고, 한번 올라 탄 이상 내려오기는 쉽지 않을 것.... 또한 자전거에 오르면 넘어지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한다는 사실도 북한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의 주요정책 목표인 남북대화와 교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안별로 유엔 안보리 제재 면제를 위한 미국 등 안보리 이사국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는 우리에게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를 주요 이해당사국들과의 소통에 한치의 오해도 없이 신뢰 속에서 상호 입장을 조율해 나가는 것을 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외교관으로서의 마지막 소명으로 알고 그 일에 전념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지난 2년 반의 경험을 토대로 유엔 외교 현장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외교안보 환경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환경이 우리 외교에 어떤 도전을 안겨 주고 있으며, 그 도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3. 북핵문제와 미중의 역할

먼저, 여러분과 함께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 있던 2017년을 잠시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그 당시와 비교해보면 한반도 안보 상황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실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2017년 한 해에만 20여발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고, 그 해 9월에는 6차 핵실험을 감행하

였으며, 11월에는 핵탄두를 탑재하고 태평양 상공 8천 마일을 날아 워싱턴에 다다를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습니다.

당시 북한은 중러 양국을 포함하여 모든 나라와 일체의 대화 채널을 단절한 채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진하고 있었고, 이렇게 막무가내인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제재압박을 강화하는 것 이외에 별 다른 수단이 없었습니다. 제재는 당시 가능한 유일한 비군사적, 외교적 수단이었습니

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총 11개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되었는데, 그 중 가장 강력한 조치를 담은 4개의 결의가 2017년 한 해에 모두 채택되었으니,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였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2017년 한해 내내 니키 헤일리 당시 주유엔 미국대사와 하루에도 몇 번씩, 심지어는 주말 밤늦은 시간까지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안보리 제재의 구체 내용을 조율하였는데, 이러한 소통과 조율은 이후 협상 국면에서 남북 교류 관련 제재 예외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이어졌습니다.

한반도 상황은 김정은 위원장의 2018년 신

대북 제재 강화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가 단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리더십과 중국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핵문제는 서로 다르면서도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미-중 양국의 긴밀한 공조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이며, 이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2006년 이래 지금까지의 대북제재 강화는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 구도였습니다. 향후 대화와 협상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면 중국이 제재 완화 과정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에는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안보리에서의 북핵 논의는 기본적으로 미중 어느 한 쪽도 다른 한 쪽의 협조 없이는 진전을 모색할 수 없는 구도이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대북제재 체제 구축 과정에서 미중 양국간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듯이 미중 협력은 제재 이행과 외교적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투트랙 접근 방식에서도 성공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북한 핵문제가 동북아 지역 안보에 대해 갖는 함의와 이 문제 해결이 가져올 지정학적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미중 양국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미중 양국은 북핵문제를 동북아 지역에서의 양국간 전략적 경쟁이라는 보다 큰 틀 속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저는 한-미-중 3국이 북핵문제에 관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면서 양자 및 3자간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미-중 양국의 전략적 이익은 수렴하기보다는 상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는 양국의 전략적 이해가 중첩되는 몇 안 되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 비핵화는 국제 비확산 체제 유지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어젠다이며, 중국에게는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미중 양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협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향후 미중 관계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용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순망치한'이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전통적인 대한반도 지정학적 관점, 즉 북한을 완충 국가로 바라보는 지금까지의 시각을 어디까지 얼마나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4. 우리 외교가 당면한 도전과 기회 (중국의 부상과 미중 갈등)

중국의 부상과 이에 따른 미중 관계의 변화가 우리 외교에 큰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는 것일

니다만, 문제는 작금의 양국간 갈등이 심상치 않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용체력이 기존 패권 세력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론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비유로 설명한 바 있는 그레이엄 앨리스 하버드대 교수는 얼마 전 우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미중간의 기본적인 역학관계에도 그대로 작동할 것이 틀림없다면서 미중간 충돌 격화 가능성을 우려하였습니다.

미주동창회 새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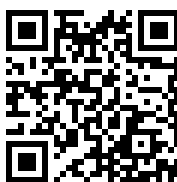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Tel: 718-463-3131 / Fax: 718-463-6789 / news@snuuaa.org

동창회비

온라인 납부 방법

우측의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지금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서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덩샤오핑 이래 후진타오 시 대까지의 '도광양화' 정책은 시진핑 시대에 접어들면서 '유소작위'를 넘어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공세적 외교정책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힘을 기르며 때를 기다리는" 신중함 정책에서 "필요할 때는 힘을 발휘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꿈을 실현한다"는 보다 상향 주도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정책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 취임한 시진핑 주석은 미국 주도의 기존 지역국제질서 타파를 위해 매우 전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대일로 구상을 통한 동남아, 중앙아로의 영향력 확대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시스템으로서의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 남중국해 군사화, 사드배치에 대한 대한민국 보복 등 일련의 조치들은 이러한 중국의 의도를 잘 보여 주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이러한 중국을 전략적 경쟁국가이자 수정주의(revisionist) 세력으로 규정하고, 경제, 안보 전반에 걸쳐 대결적인 대중국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중국의 개방과 국제경제질서 편입을 지원하면 중국이 서방과 같은 유형의 국가로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에 바탕을 둔 그간의 대중국 정책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성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사장은 최근 서울에서 한 연설에서 "중국의 자유화를 기대했던 우리의 상식을 이제는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갈수록 당파적 분열이 심해지고 있는 미국이지만 대중국 강경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보수와 진보,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는 물론, 22명의 민주당 예비 대선후보의 대부분이 중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무역정책과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비판을 한다 해도 중국과의 대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동맹국들을 꺼안아야 한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환율조작국 지정 등 보다 강경한 대중국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사도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미중 갈등은 단순히 특정 행정부의 인식 때문에 생기는 일시적 갈등이 아니라 국제적인 세력구조 개편 과정에 따른 강대국간 전략 경쟁의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외교는 북핵 문제 등 안보 현안을 넘어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미중의 경쟁 구도 속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상황에 계속 놓이게 될 것입니다.

60년이 넘게 지속된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 안보 정책의 근간이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1992년 수교 이래 급속히 발전되어 온 한중 전략적 파트너십 또한 지속 업그레이드 되어 갈 것이라는 것은 이혼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이루어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 미중 양국의 정치적 지지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파트너십을 상호 조화롭고, 제로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는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관세폭탄과 같은 무역전쟁으로 시작된 미중 갈등은 최근 화웨이 제재에서 보듯이 소위 '디지털 냉전(Digital Cold War)' 기술 냉전(Tech Cold War)으로 불리는 보다 복잡한 패권 경쟁의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우리에게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조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 안보적 파장을 가져 올 것이기 때문에 창의적이고도 전략적인 사고와 신중한 정책적 판단과 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중 양국과의 관계를 원만히 관리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외교가 당면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동북아 지역에서 미·중 양국의 전략적 이해가 상호 충돌하는지, 조화를 유지하는지는 우리 외교정책의 대외환경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중 관계가 어려워지면 우리 외교의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지는 반면, 우리가 미·중 양국과 공히 신뢰를 구축하면서 지혜롭게 대응해 나간다면, 우리 외교의 영역은 그만큼 넓어지고 동북아 지역에서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이는 북핵 문제 등 북한 문제가 우리 외교정책에 도전과 함께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한일관계와 과거사 문제)

최근 우리 외교에 부담을 주고 있는 또 하나의 영역은 한일 관계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한미일 공조체제의 한 축인 일본의 지지와 참여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 외교의 중요한 과제이며, 한일 관계의 원만한 관리와 지속적 강화는 대, 대중 관계 속에서 우리의 레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긴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일 관계가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러한 한일 갈등은 미국에게 심각한 딜레마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의 동맹국들이기 때문에, 이 두 나라의 관계 악화는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동반 성장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위해 다른 한 쪽을 희생한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미국으로서는 대 중국 관계 및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미일 3국간 안보 협력이 매우 중요한 전략적 과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일 관계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기반 위에 올려놓기 위해 보다 큰 구도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러 관계와 미러 갈등)

대러시아 관계 관리도 우리 외교에 중요한 도전 과제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서 주요 행위자 중 하나로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배려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간 조화를 모색하고, 통일로 가는 길에서 러시아가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문제는 미러 관계가 러시아의 크림리아 합병, 시리아 문제 등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란 핵합의 철회, 미러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움직임에서 보듯이 미러 양국이 거의 모든 외교 영역에서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어 이러한 글로벌 차원의 미러 갈등이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도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러 갈등이 한반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러시아가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과 향후 합의 이행 과정이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러 관계를 매우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5. 북핵·북한 문제 추진 방향과 전망

그러나, 이 모든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와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자 도전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북핵·북한 문제입니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고조되었던 북핵문제의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구체적 합의 없이 종료된 이후 점차 회의적 시각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과연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대안 없는 논쟁이 아니라 비핵화 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행동입니다. '건강한 회의론(healthy skepticism)'은 필요하겠지만, 맹목적 회의론(blind skepticism)에 빠져 지금까지 우리가 어렵게 일궈낸 모멘텀을 잃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 비핵화 협상 실패의 경험을 되새기며 오늘날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한미 양국의 비핵화 협상 전략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포괄적 합의 추구'이며, 다른 하나는 'top-down 협상방식'입니다.

#### 6. 마무리 말

과거 1994년 제네바 합의나 919 공동성명은 핵동결 또는 비핵화 조치를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과 맞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관계정상화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의 문제는 거론은 되었지만 이후 단계에 협의할 사안으로 미루어놓았었습니다. 그러나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수준과 강력한 대북 제재 체제의 현실 속에서 이제는 양측 모두 요구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북미 양측은 경제적 조치와 안전보장 문제를 포함한 제반 관심사안에 대한 협상을 통해 '포괄적 합의' 도출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합의 도출에 성공하고도 이행 단계에서 번번이 좌초되었던 과거 비핵화 협상은 실무급 협상의 결과를 최고위급에서 추진받는 'bottom-up' 협상의 한계를 노정하였습니다. 이는 최고지도자 외에는 그 누구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북한 체제의 특성 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이제 협상은 남북·미 정상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top-down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최고위층에서 이뤄낸 이러한 모멘텀은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

상 최초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물론, 협상 과정에 우여곡절은 많았습니다. 특히 북미협상 트랙이 그러하였습니다. 국제사회의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구체적 합의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현실 점검(reality check)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것이었습니다. 북미 양국이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은 다음 협상 단계에서 진전을 모색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북미 양측은 지금 협상 전략을 재점검하며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길 기다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느 쪽도 또 다시 합의가 불발되는 정상회담은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협상재개에 매우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그 누구의 편도 아니며, 북한의 편은 더더욱 아닙니다. 탐색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협상의 모멘텀이 급격히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북미 양측은 협상 프로세스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도 이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창의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아직 협상 재개 조짐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협상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대화를 촉진하고 어렵게 조성된 협상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고 김여정 부부장이 그 이후로 여사 별세에 대한 조의 표명을 위해 판문점을 방문한 사실이 협상 재개를 위한 긍정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어제부터 이틀간 이루어지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다음 주에 개최되는 오사카 G20 정상회의 및 이를 계기로 이루어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도 협상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 6. 마무리 말

동문 여러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향한 길은 험난하며, 장시간을 요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저는 북핵문제가 대화와 협상의 길로 계속 나아가길 것으로 믿습니다. 북한은 이미 비핵화라는 이름의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고, 한번 올라 탄 이상 내려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전기에 오르면 넘어지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한다는 사실도 북한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향해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나아가야 하며, 그 과정에서 특히 미국과 긴밀히 소통, 조율하면서 주변국들의 단합과 연대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기회는 꼬리가 없어 뒤에서 잡을 수 없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는 북핵문제

## 제28차 평의원의회의 (6월 21~23일), New York



#### 【기사: 김원영 편집인】

제28차 미주 평의원 회의가 지난 6월 21일에서 23일까지 뉴저지 포트리 Double Tree Hilton Hotel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미주 각 지부에서 선출 평의원, 당연직, 종신이사 등 모두 101명의 평의원이 참가했다. 기조 연설자로 조태열 (법대 79년 졸업) UN 대사가 참석하였고, 모교 오세정 (물리 71) 총장, 신수정 (음대 59) 총동창회 회장이 여러 임원과 함께 참석했다.

신응남 (농대 70) 동문이 윤상수 (수의대 62) 동문에 이어 제15대 미주동창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새로 구성된 집행부를 뉴욕에 두고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봉사한다.

신응남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든든히 서가는 모교를 위해 우리 마음 속 첫사랑의 열정을 다 함께 일깨울 때”라며 “그 일을 위해, 26개의 각 지부 방문, 지부를 도와 새로운 동문을 발굴하며, 동창회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분기별 노력의 결실을 위한 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주 동창회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각

지부의 행사에 적극 참여, 후원을 할 것”이며, “새 회원 영입, 기금모금 추진, 각 지부 회원주 소록 발간, 세미나 개최 그리고 장학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정 모교 총장이 국제협력본부장 구민교 교수, 발전기금상임이사 채준 교수, 총장실 최진민 선임주무관 국제협력본부 조현진 주무관과 함께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 오 총장은 축사에서 “서울대의 성장과 발전은 동문 여러분들의 모교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말하고, “구성원이 자부심을 느끼는 대학,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학, 더 나아가 세계가 존경하는 대학으로 더욱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신수정 총동창회 회장은 축사에서 “올해는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라고 말하고, “50주년을 맞은 지금 총동창회가 새로운 기틀을 잡기 위해 여러 가지 진통을 겪는 시기”이지만, “흔들리지 않고 지금의 어려움을 더 큰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고 말하고, “모교 사랑과 동문 화합의 기치 아래 더욱 단단하게 미래를 만들

어 갈 것”이며 “미주 동문님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총동창회에서는 신 회장외에 강인구 총동창회 명예부회장(수의대 59), 김영재 재단법인 관악회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미주동창회 차기(제16대) 회장 선거에서는 남가주 지부의 노명호 (공대 60) 동문이 당선되었다. 노명호 동문은 “전임 회장단이 추진했던 사업을 이어 받고, 동창회 활성화, 지역 동창회와 소통, 동창회 기금 모금 활성화, 모교 서울대와 모교 총동창회와 교류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21일 전야제(기사 참조), 22일 평의원 회의 오전, 오후 세션(기사 참조)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21일 전야제에서는 이번 행사의 주요 연사로 초빙된 조태열 (법대 79년 졸업) UN 대사가 “북핵 협상과 한반도의 장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날 강연(p 3 내용 참조)에서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간 국제정치, 외교 역학 관계에 관해 깊이 있게 본인의 견해를 밝혔다.

제15대 집행부는 1년 예산을 총수입 \$237,300, 총지출 \$229,500으로 책정했다. 제14대 집행부는 지난 2년간 총수입 \$498,258.8, 총지출 \$402,993.9 (2019년 5월 15일 기준)을 했다. (p 18, 19 참조)

또한 강연자로 이홍규 (의대 68년 졸업) 서울대 명예교수의 강연과 장태환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이홍규 교수는 이날 ‘한국의 기원과 DNA 추적’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교수는 내분비 내과의 권위자이며, 우리 한민족의 기원과 관련한 많은 연구를 했다. 이어서 장태환 교수는 ‘파차파 캠프-미주 최초의 한인 타운’이라는 제목으로 미주 한인 사회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강연(p 9 내용 참조)을 했다.

오세정 모교 총장이 수여하는 공로패는 영광문 조정현 (수의 58), 강기동 (공대 53), 참여부문 박윤수 (문리 48), 이용락 (공대 48), 방은호 (약대 43), 이준형 (공대 48), 학술부문 장윤일 (공대 60), 최찬혁 (의대 57), 사회 기여부문 구경희 (의대 59), 정정욱 (의대 60), 유성은 (의대 88) 동문에게 돌아갔다. (p 6, 16 수상자 참조)

제15대 집행부는 1년 예산을 총수입 \$237,300, 총지출 \$229,500으로 책정했다. 제14대 집행부는 지난 2년간 총수입 \$498,258.8, 총지출 \$402,993.9 (2019년 5월 15일 기준)을 했다. (p 18, 19 참조)

등의 장예물을 제거하면서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안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세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

여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먼 훗날 뼈아픈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기회는 변화를 기다리지 않고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하는 자들에게 찾아오며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국론의 통일과 미중

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확보할 때 더 빨리 찾아 올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제28차 평의원의 강연회 및 환영 만찬 (6월 21일), New York



이홍규 (의대 68년 졸업)



장태한 교수

【기사: 김원영 편집인】 제28차 평의회 첫 행사는 21일 오후 2시 이홍규 (의대 68년 졸업) 서울대 명예교수의 강연으로 시작되었다. 이 교수는 “한국인의 기원과 DNA 추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교수는 “한민족은 방하기의 시베리아에서 노스트라티카와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하며 추위에 적응된 체질을 발달시켜 온 사람들이 빙하기 이후 남으로 내려오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던 남방계 사람과 혼혈되어 형성되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둘째 강연은 UC 리버사이드 대학 장태한 교수의 “파파와 캠프-미주 최초의 한인 타운”이라는 제목의 강연이 있었다. 미주 초기 한인 사회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강연(p9 내용 참조)

으로 최초의 한인 타운 파파와 캠프의 형성 과정과 한인 초기 이민 사회의 특성을 과거 자료들을 통해 살펴보는 강연이었다.

두 분 강사의 열띤 강연에 이어 오후 5시반부터 평의원의 환영 만찬이 이상운 제14대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막을 열었다. 윤상래 14대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신응남 차기 회장 환영사, 손대홍 뉴욕지부 회장 환영사(p 6 내용 참조), 신수정 총동창회장 축사, 오세정 모교 총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윤상래 회장은 “먼 안목을 두고 우리 미주 동창회가 이 거대한 대륙에서 영원히 발전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2년마다 이사를 다니면서 재산을 모을 수는 없다.” “찬 반이 있으나 미주동창회의 연구한 발전을 위해서는 동창회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응남 차기회장은 “국적은 바꿀 수 있으나 모교 (Alma Mater)를 바꿀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동창회가 행사를 이어가는 단체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리드해 가는 높은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과 “합심하여 자랑스러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며 환영사를 했다.

이어서 모교 총장 공로패, 총동창회장 상패, 미주동창회장 상패 수여식이 있었다. 모교 총장 공로패는 미주동창회 초대회장을 지낸 박윤수(문리 48) 동문을 비롯한 열 한분의 동문(수상자 명단 P 16)에게 증정되었다. 신수정 총동창회장 상패는 뉴욕지역 동창회 이사장으로 봉사한 한태진 (의대 58) 동문을 비롯한 열 다섯 분의 동문(우측 수상자 명단 참조)에게 증정되었다. 윤상래 미주동창회장 상패는 제14대 사무총장으로 봉사한 이상운 동문을 비롯 2년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한 제14대 동창회 임원들(우측 수상자 명단 참조)에게 돌아갔다.

이번 행사를 위해 방문한 발전기금 상임이사인 경영학과 채준 교수가 모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비전과 발전기금에 관한 소개가 있었다.

다음 순서는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조태열 (법대 79년 졸업) 주 UN 대사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주제는 “북핵 협상과 한반도의 장래”(p 3, 연설문 참조)였다. 조 대사는 “우리는 북핵 문제 등의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안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세대” “마주한 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먼 훗날



고종성, 박명일, 신수정 회장, 윤운상, 한태진 동문

▶ 신수정 총동창회장 표창패 수상자

고종성 (사대 75), 하용출 (문리 67), 방석훈 (농대 56), 이기홍 (수의 52), 한태진 (의대 58), 차민영 (의대 76), 박명일 (농대 69), 손경택 (농대 56), 고일석 (농대 56), 오명선 (가정 69), 허지영 (문리 66), 윤운상 (상대 66), 홍혜례 (사대 72), 이대영 (문리 64), 강신용 (사대 73).



김병국, 이상운, 윤상래 회장, 김경숙, 조화연, 이정수, 이영인, 김제성 동문

▶ 윤상래 미주동창회장 표창패, 공로패 수상자

서윤석 (의대 62), 김경숙 (상대 70), 김병국 (공대 71), 장수인 (음대 76), 조화연 (음대 64), 이정수 (공대 71), 이영인 (사대 74), 김제성 (공대 87), 이상운 (수의 87), 이진희 (수의 87).

빠아픈 후회를 하게 될 것” “기회는... 노력하는 자들에게 찾아오며,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기회는 국론의 통일과 미·중 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전폭적인 지지의 신뢰를 확보할 때 빨리 찾아 올 것”이라고 말했다.

각 테이블을 돌며 가장 젊은 동문인 그 테이블 선배님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서로 안면을 넓히며 친목을 나누고 이날 행사를 마무리했다.

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머나먼 타국 땅의 각 분야에서 많은 선배 동문들께서 미주 동창회와 각 지역 동창회를 이끌어 오셨음에 깊은 존경과 감사들 드리며 앞으로도 이곳의 많은 젊은 동문들도 선배님들 못지 않게 미국의 각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미국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함으로써 모국과 모교의 위상을 높여갈 것임을 기대합니다.

이번 평의원의회의 기념 음악회가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음악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카네기 홀에서 열리게 됨을 또한 축하드리며 음악회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동문들과 함께 하는 멋진 음악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며 음악회를 통하여 미주 각 지역에서 오신 동문들이 하나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가의 한 구절인 ‘더욱 더욱 융성하는 서울대학교처럼, 미주동창회와 각 지역 동창회, 그리고 본국의 총동창회, 모교까지 모든 서울대인의 모임이 더욱 융성하길 바라며 환영 인사말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8차 평의원의회의 (6월 22일), New York



【기사: 김원영 편집인】

제28차 평의원 회의가 22일 토요일 오전 9시 뉴저지 포트리 Double Tree Hotel에서 열렸다. 이상운 제14대 사무총장의 사회로 제14대 윤상래(수의대 62) 회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고가 제창이 있었다. 윤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신응남 (농대 70) 차기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신수정 (음대 59) 총동창회 회장은 과거 뉴욕에서 공부하고 거주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뉴욕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오전에는 제27차 평의원 회의록 낭독 및 인준, 지난 1년 동안의 사업보고와 여러 재무 관련 보고 및 감사 보고 후에 다양한 토의 및 논의가 이뤄졌다. 점심 식사 후, 평의원의회의가 속개되어 차차기 (제16대) 회장 선출 및 제14대와 제15대 회장의 이취임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진행된 회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들을 담아 간략하게 요약한다.

<오전 세션>

성원 보고 전체 평의원 참석자가 101명, 프록시 (대의원) 27명이 참석해 의사 표결 정족수를 넘어 정식으로 개회가 선언됐다. 2018년 6월에 보스턴에서 실시한 제28차 회의록 낭독은 시간 절약을 위해 생략되었다. 이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었다.

사업 보고

▶ 브레인네트워크 위원회 보고 = 김병국 Brain Network 위원회 (하용출, 이강원 공동부회장, 강명규, 김병국 공동 위원장)는 2019년 4월 6일 '2019년 브레인 네트워크 워크샵을 MIT Stata Center에서 개최했다. 윤상래 미주동창회장, 신응남 차기 회장 등을 비롯하여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연은 소강표 박사, 고종성 박사, 최찬혁 박사 등 세 분이 진행했다. 먼저 MIT에서 박사후 연구원(포스닥)으로 연구중인 소강표 박사(성균관대 석박사)가 ‘나노 공정을 이용한 기술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나노 공정을 이용한 기술은 그 용도가 무궁무진한데, 일례로 손목에 이 기술을 이용하면 순간반지도 강하게 만들 수 있어 내구성이 요구되는 일상용 장신구로 만들 수 있다”고 소개했다.

두번째 연사로 나선 제노스코(Genosco)사 대표 고종성 박사(사대 75)는 폐암치료 신약 개발에 대해 발표하였다. 고 박사는 각 인종이나 사람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약을 개발한 과정을 소개하면서 아시아에 맞는 폐암 신약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고도의 디자인 기술을 적용한 이러한 맞춤형 신약은 다른 약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암세포를 보다 정밀하게 조준 사멸케함으로써 강력한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세번째 연사로 나선 매스제너럴 병원(Mass General Hospital) 최찬혁 박사 (의대 57)는 ‘방사선 폐암 치료에 대해 발표했다. 최 박사는 방사선을 이용한 폐암 치료에 평생을 연구한 권위자이다. 최 박사는 준비한 도면을 설명하면서 양자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로 암 부위를 보다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 회보 편집위원회 보고 = 김원영 지난 2년간 총 446명의 필진이 참여했다. 지부 소식은 158회, 동문동정에 소개된 동문은 95명이다. 동문 인터뷰 기사는 총 15명과 했다. 월 단위로 각 지부 활동 소식과 미주내 동문 활약상을 소개했다. “미국에서의 나의 발자취”라는 주제로 회고



형식의 인터뷰 기사를 15회 연재했다. 월 별로 테마를 정해 필진들에게 부탁하여 관련 글을 올렸다. 동문 수가 작은 지역 동창회를 여러모로 배려했으나 참여율은 좋지 않았다. 동창회 자체 참여 인원이 적고 관심이 낮은 듯 했다.

동문 간 서로 식견을 나누는 목표에서 모든 분야를 망라한 주제들의 글로 동문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했다. 미주동창회 주관 브레인 네트워크 워숍, 워싱턴주의 동문 시니어 클럽 주관 ‘SNU Forum’, 남가주 동문 ACRO 인문 강좌 등 각지역 동문 전문가 강좌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동문이나 단체와 연계해 강연 내용을 구해서 회보에 올려 미진역의 독자에게 소개하고자 했다.

회보의 많은 부분을 동문 기고에 의존하다보니 필진의 다양함, 기고 글의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 각 지역으로부터 논설위원을 추천받아 약 50여 명 이상의 다양한 분야 논설위원들이 정기, 부정기적으로 기고를 하면 원고 가뭄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젊은 동문을 필진으로 참여시키려는 노력을 했으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지역에 따라 회보가 해당 달에 우송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회보의 내용, 편집을 추구하다 보니, 수집되는 기고 글의 부족분을 채우다 늦어지는 일이 많았다. 논설위원들의 정기적 기고와 다양한 필진을 발굴하고 참여시키면 해소되리라 본다. 회보 우송이 늦어지는 일은 회보 제작 후, 즉시 디지털 신문(PDF파일)을 확보된 이메일을 통해 우선 전송했다.

▶ 회관건립 위원회 보고 = 김병연 미주동창회 회관의 건립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동창회 집행부가 2년마다 도시를 순회하는 상황에서 장소를 한 곳에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규모도 300명 정도 수용하는 뱅킹이 필요하다. 기금을 마련해 건물을 짓더라도 운영 경비가 문제다.

만약 건립한다면 적어도 10,000 SQ. Ft. 규모에 주차장도 100대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규모면 LA 기준으로 천만불 정도 든다. 뉴욕은 더 들 것이다. 커머셜 빌딩을 사려면 요즘 40%는 디파짓해야 한다. 400만불 정도 캐쉬가 필요하다. 1년에 미주동창회 운영비로 20만불 드는데, 20년을 안쓰고 그대로 모야도 20년 후다. 혹시, 모교와 코업을 해서 모교지원으로 건립한다면, 동창회가 뭔가 이벤트해서 대학을 터뜨린다면 가능할까? 막연한 기대다. 절대 돈을 조금씩 모아서 건립한다는 것은 어렵다. 남가주에서 한귀회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 얘기를 들어 보자.

한귀회: 남가주는 지난 4~5년간 김병연 전회장이 소유한 건물에서 동문 모임 등을 하여 따로 자체 동창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못느꼈다. 14대 출범 초기 김병연 전회장이 회관건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본인이 윤 회장님 부탁으로 여기 합류하면서 2년 후, 혹시 미주동창회 집행부가 남가주로 오면 회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마침 본인이 추진하던 원로동문 아파트 건립 중, 그 아파트와 비슷한 사이즈의 또다른 건물을 지을 기회가 생겨서 이 건물을 남가주 미주동창회 집행부가 활동할 때 사용하도록 준비를 하면 어떨까 생각했다.

그래서 추진한 게 연건평 10,000 sf 정도 대지에 4층 규모 건물이다. 1층 4,000 sf 정도 뱅킹에 200~300명 수용이 가능하고 식당, 부엌까지 계획해 자체 해결 가능한 공간 디자인을 했다. 2층에는 4,000 sf 정도의 공간에 사무실 등을 배치했다. 임광수 전총동창회장께서 건립하신 서울의 ‘강학빌딩’이 일부를 사무실로 임대해 수익을 내는 것을 참고했다. 동문 CPA, 변호사

들이 입주하면 좋을 듯하다. 3~4층에는 관리 차원에서 주거용 아파트를 넣었다. 이렇게 지난 1월까지 외부 설계를 하는데 6개월을 들이고 2월 남가주 신년 총회에 발표를 하게 되었다. 이후, 윤 회장님께서 이 계획을 접하시고 이번 평의원 회의에서 이 사례를 좀 설명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 현재는 내부를 설계하고 있다.

▶ 회칙위원회 보고 = 조화연 (1) 두 명의 새 위원 추가: 조정현 (수의대 58), 조화연 (음대 64) (2) 한재은 (의대 59) 위원장이 개인사정으로 임기 중 사임하게 되어 후임에 조화연 위원이 취임 (3) 작년 27차 평의원의회의에서 과제로 주어진 2 위원회 세칙의 영역 (평의원 바인더 부록 참조)

• 미주 동창회 후원회 세칙 •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세칙 (4) 그 동안 없는 줄 알았던 한국어 회칙이 발견되어 거기에 지금까지 있었던 열아홉 개의 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수정본 작성 (평의원 바인더 부록 참조)

(5) 이미 있는 영어 회칙에 지금까지 있었던 19개의 Amendments를 포함하여 개정본 작성 (평의원 바인더 부록 참조) (6) 그 동안 없는 줄 알았던 우리말 회칙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미 있던 영어 회칙과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과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거론되어 왔으나 아직 평의원에서 토의 결정되지 않아서 앞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상의하여 건의 (평의원 바인더 부록 참조)

▶ 나눔위원회 보고 = 황선희 (윤상래 대독) 이현석 동문 돕기: • 이현석 동문을 돕기 위해 시카고 동창회에서 모금한 1,200불과 필라델피아 동창회에서 모금한 2,200불을 이현석 동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미주 동창회에서도 1,700불 (시카고 동창회 김현배 동문이 후원금으로 보내주신 200불 포함)을 전달하였습니다. • 아래는 2018년 7월 1일부터 후원하신 분들입니다 (위에 언급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윤영자 (미대60): 100, 이경연 (문리71): 50, 차수만 (약대 71): 200, 손재욱 (가정 77): 500, 이영신 (간호 77): 25, 이현석 돕기: \$1,700 - (현재 잔액: \$10,225.00)

▶ SNUAUSA 역사 기념관(Foundation) 보고 = 윤상래 • 종신이사 임명장 제작 및 수여 2019년 6월 현재 총 76 명의 종신이사님을 모시고 있다. 작년 종신이사 구분 세칙에 준해 종신이사 74명, 골드 종신이사 2명이 계산된다. 제14대 임기 중 모두 스물 두 명의 새 이사가 가입했다. 현재 잔고가 \$270,579(이자 미포함)이다. 이번에 종신이사 임명장 (종신이사 일련번호 부여)을 일괄 제작해 종신이사께 우편 발송하였다.

• 동창회 후원회 (관악 후원회) 부회장 추천 및 임명 기금이 27만불 이상이 되었는데, 이천 CD에만 넣어두기 보다는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책임을 맡을 동문을 물색하다 오하이오 김용현 동문이 관심을 보여 이번에 부탁드려려고 했으나 이번 평의원에 참석을 못하셨다. 만약 이 분이 못하신다면 이 자리에 계신 배규영 동문께서 맡아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결정하기 어려우시면 지금 당장 결정하기 보다는 본인에게 지명 권리를 주시면 추후에 결정하겠다. (윤상래 동문에게 권리를 주는 것으로 동의 됨)

▶ 특별사업 보고 = 백옥자 2018년 10월21일 서울대 홈커밍데이 미주동문 참여 보고 >> P 8 아래 계속





장태한

<제28차 평의원회의 기념 강연>

### 미국 최초의 한인타운 '리버사이드 파차파 캠프' (초기 독립 운동의 메카)

2001년 8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 시 시청 앞 유니버시티와 메인 길에서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 (홍영기 이사장) 주최로 도산 안창호 동상 제막식이 열렸다.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 왜 도산 동상이 건립됐으며 어떤, 그리고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리버사이드는 도산 선생의 미주 독립운동 활동의 메카였다. 도산의 리버사이드 생활과 활동에 대해 처음으로 연구한 사학자 고이선주는 “도산의 59년 생애에 있어서 이처럼 중요한 리버사이드의 생활과 활동이 그동안 적절한 관심을 끌지 못했으며, 연구의 대상에서조차 제외되어 왔다. 이 곳의 지명이 하변으로만 알려져 있어 캘리포니아에 있는지 아니면 만주나 시베리아의 어느 벽지인지조차 모르는 이들이 많다.”고 밝히면서 도산 연구에 있어서 리버사이드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구 대상에서조차 제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04년부터 한인 집단 거주 지역이었던 리버사이드 한인타운을 사람들은 ‘파차파 캠프’ 또는 안도산 공화국 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지금까지 파차파 캠프의 정확한 주소는 1532 Pachappa Avenue로 알려졌는데 지금은 4430 Commerce Street으로 바뀌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리버사이드 시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의 정확한 주소는 3096 Cottage Street으로 밝혀졌다. 1932년 4532 Pachappa Ave로 바뀌었고 1952년 4532 Commerce Street으로 바뀌었다가 남가주 개스회사와 그 근처 토지를 전부 매입하여 건물을 지으면서 주소가 3096 Cottage Street으로 통합된 것이다. 따라서 아쉽게 초기의 모습은 전혀 보존되지 못하게 되었다.

1908년 소방서 지도에 Korean Settlement으로 표시된 한인촌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약 20개의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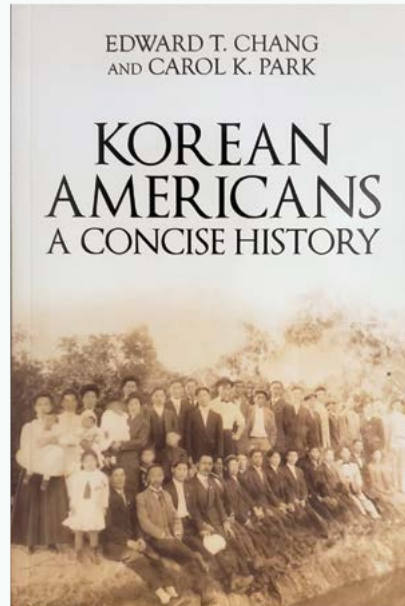
진 목조 건물은 모두1층 이다. 커뮤니티 센터와 두 세대용 건물은 15층이다. 대부분의 목조 건물은 직사각형이며 3개의 건물은 정사각형 또 다른 건물은 L모양이다. 모두 한 개 창문이 있다. 5층은 창문 가리개가 있으며 12층은 타일 굴뚝이 있다. 2개의 건물에는 스토브 파이프가 있었지만 다른 2개 건물은 굴뚝이 없다. 수도물도 나오지 않고 전기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판자촌의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조국의 독립운동도 활발하게 전개했던 것이다.

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취업으로 시작된 미주 한인 이민사이지만 하와이 거주 한인들은 여러 섬의 사탕수수 농장으로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한인촌을 형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리버사이드의 파차파 캠프가 한인타운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한 지역에서 많을 때는 300여명의 한국인들이 모여서 집단 거주 지역을 형성했고 자체적으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민족 공동체를 형성했다. 대한민국회 북미총회가 1911년 리버사이드에서 개최되었는데 대의원 제도를 도입했고 대의원은 “인민”을 대표한다고 명시했다. 즉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다; 직업소개소를 창업하여 이주 한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한인들이 모여들면서 한인촌이 형성이 가능했다; 총각 중심의 타 지역 한인 거주 지역과는 달리 가족과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가족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했다. 도산 안창호의 리더십으로 독립운동의 초석을 다지면서 1905년 공립협회를 창립하고, 1906년 신민회를 발기 했으며, 1909년 대한민국민회와 1913년 흥사단을 조직하는 민족 공동체 역할을 담당했다. 도산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파차파 캠프 한인타운은 민주적 그리고 행동하는 리더십의 본보기가 된다; 미주 한인들이 ‘일본 식

민국민이 아니라”는 법적 지위를 인정 받는 결정적인 동기를 마련해 주었다. 따라서 미주 한인들은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파차파 캠프 한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과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암살했다는 소식을 알린 전은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파차파 캠프는 다시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한인장로선교회 건물에서 거의 매일 밤마다 회의가 열렸고 안중근 의사를 돕기 위한 기금 모음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전낙청(아버지)도 마차를 살 수 있는 금액을 내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머니가 그 액수가 너무 많다고 불평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거의 매일 밤 모임에서 연설과 기금 모금 행사가 열렸다.”



장태한 교수의 관련 저서

기록은 이어진다. “안중근 의사는 재판에서 혼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고 체포된 한인 지도자들은 풀려나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 리버사이드로 한인 망명객들이 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부분 학생들이었고 조선을 탈출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을 듣고 파차파 캠프 한인들은 더욱 고무되어 독립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나라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접한 파차파 캠프 한인들은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

망국일 행사를 거행했다. “미스터 송은 애국가를 합창해 부르면서 참석자들도 함께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참석자들의 얼굴에는 체념의 모습이 보였다. 갑자기 만세 만세를 외쳤다. 참석자 모두 만세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지면서 울음바다가 되었다. 기도는 우리 아버지를 시작으로 끝내지도 못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다음은 임씨의 차례였는데 그는 양반 출신이다. 만약 안 선생이 여기 있다면 기죽지 말고 머리를 들고 독립운동을 하라고 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대한 독립을 위해 싸우야 한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곧 돌아올 것이다.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의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이다.”

여성들도 독립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그들의 희생과 기여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특히 리버사이드 한인타운은 타 지역과는 달리 여성과 자녀들이 함께 거주하는 가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했다. 파차파 캠프의 한인 여성들은 주로 남편들의 대한민국민회 활동과 독립기금 모금에 간접적으로 동의하는 소극적인 활동을 했으나 1918년 이후부터는 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확인되었다.

1918년 9월 18일 ‘신한민보’는 “리버사이드 지방 한인 부인들은 지난 9월 16일 일반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남자들과 같이 하기로 하였다 하니 참 장려 할 만하다. 특히 리운경씨의 부인은 60당년에 병원에서 고역하여 버는 돈을 우리 사회와 국가에 다 쓴다고 하니 참 그 열성을 모범 할 만하더라. 또한 그 지방에서는 각각 한인들의 집에서 간장을 만들어 쓰는 고로 일인의 장을 쓰지 않고 일인의 일반 물화를 모두 배척하기로 했다.”라고 보도하였다.

리버사이드 시 의회는 2017년 3월 23일 파차파 캠프가 미 최초의 한인타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념식을 열었다. 미주 한인들의 발자취를 되 돌아 볼 수 있는 사적지로 공식 인정 받은 것이다.

UC 리버사이드 대학교수, 김영옥 재미동포 연구소장)

2018년 서울대 72주년 개교기념일을 맞이하여, 서울대 총동창회 등반대회 참가 및 제주도에 2박3일 관광을 했다. 10월 15일 서울대 개교 72주년 기념식, 10월 16일에서 18일까지 제주도 2박3일 관광, 10월 21일 서울대 총장실 방문, 서울대 총동창회 등반대회 참가, 10월 22일 서울대 규장각 및 도서실, 서울대 총동창회 장학발딩을 방문했다. 미주에서 참여한 동문은 9 지부에서 스물 네 분의 동문과 그 가족이 참가했다.

다음은 2019년 10월 서울대 제40차 홈커밍데이 미주동문 참여 일정이다. 1) 10월 15일 (화) 서울대 개교기념식 및 선 후배 간담회 질의 문답, 2) 10월 20일 (일) 서울대 홈커밍데이 등반대회 및 서울대 총장실 방문, 3) 10월 21일 (월) 서울대 투어 및 서울대 총동창회 장학발딩 방문

▶ **재무 보고** = 김재성  
재무 보고는 P 18 참조. 질의 응답은 회의록에는 기록하나 여기에는 보고만 기록함

▶ **제14대 2차년도 감사 보고** = 박영철  
제14대 1, 2차년도 결산을 김명승 감사님과 함께 자세히 검토했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기록되었음을 보고한다.

▶ **기타 토의 안건** = 윤상래  
1. 지부 분담금 조정건  
2. 지부별 평의원 숫자 조정건  
3. 지부별 액티브 멤버 관리건

#### <오후 세션>

손재욱 인선위원장의 사회로 차차기 (제16대)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었다. 노영환(공대 60) 동문이 75명 투표에 74명의 찬성으로 차차기 회장에 당선되었다.

투표를 마치고 제14대 윤상래 회장이 이임사를 했다. 제15대 신용남 회장에게 동창회기를 인계하였다. 제15대 신용남 회장의 취임사 후, 감사 위원 선출 및 사무총장 선출 인준 순서

가 있었으나 미결정되어 제15대 회장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제15대 회장단은 사업 계획안으로 다음을 발표했다.

- 1. 26 개 지부 동창회 방문: 월별 계획으로 기획
- 2. 새 동문 영입: 1,000 명 목표 - 각지부와 공동 사업으로 추진, 새로운 아이디어 모집/채택/추진
- 3. 편집회의 시, 영상 매체를 통해 각 지부참여 유도
- 4. 지부 장학사업 및 세미나 개최 행사 지원
- 5. 미주 발전기금과 공동목적 협력/공조
- 6. 모교와 미주에서의 공동 프로젝트 개발
- 7. 각 분과 활동의 분기별 평가 및 점검
- 8. 16대 회장단과 유기적 관계 유지 및 공조

제15대 회장단은 1차년도 예산 수입을 \$237,300, 예산 지출을 \$229,500로 책정했다. (P 19, 제15대 1차년도 예산 편성안 참조) 사회자의 폐회 선언으로 오전 오후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 제28차 평의원 회의를 마쳤다.

### 제28차 평의원회의 (6월 22일), 카네기홀 축하 음악회



【기사: 필하모니아 보스턴 챔버오케스트라】  
지난 6월 22일, 서울대 미주동창회 축하 음악회 Summer Fantasy가 뉴욕 Carnegie Hall에서 성대히 열렸다. 음악가들에게 꿈의 무대인 카네기홀은 동문연주자들과 600석을 꽉 채운 관객들과의 열정적 교감으로 가득했고 뉴욕의 한여름밤은 동문들과의 아름다운 시간으로 빛났다. 이번 카네기 공연의 음악감독으로서 일년에 걸쳐 전체기획과 진행을 맡은 필하모니아 보스턴 단장 장수훈(음 76) 동문은 다음과 같이 소감을 말했다.



바이올린 김현정 (음대 02) 협연

“여러가지 의미를 지닌 감동스런 공연이었습니다. 음악회의 주된 기획 의도는 미주동창회의 큰 축하공연인 만큼 여러 지역의 많은 동문 음악인이 함께 동참하는 연주회 구성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협력하여 아름다운 음악회를 성황리에 잘 끝내어 뜻깊은 보람이었습니다. 긴 준비기간을 거치며 연주자 선배들간의 우정과 존경이 쌓인 멋진시간이었습니다. 미주동창회 신용남 회장님 내외께서 전반에 걸쳐 큰 일부터 세부사항까지 큰 수고를 해주셔서 28명의 연주자들에게도, 뜨거운 성원을 해주신 동문들



현악사중주

과 관객들에게도 멋진 한여름밤의 추억을 만들어 주시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카네기 연주를 위해 일년동안 준비하여 LA 에서 오신 김미자 선배님과 한국에서 날라와 리허설과 연주를 하고 다음 날 다시 한국으로 떠난 챔버 멤버

들, 이태리로부터 날라와 2부를 맡아 지휘하고 공작 돌아간 김유원 지휘자, 뉴욕과 보스턴을 오가며 연습한 챔버오케스트라 단원들 등 학번과 지역의 차이를 넘어선 동문 연주자들이 열정의 마음을 모아 만들어 낸 한여름밤의 하모니가 감동스러웠습니다. 또한 제13대 필라델피아, 제14대 뉴잉글랜드, 제15대 뉴욕, 제16대 LA 본부도 미주동창회를 연이어 맡아 이끌어 나가는 네 지역의 음악인들이 함께 연주하여 더 의미가 컸습니다. 인생의 연륜의 깊이를 절절히 서정에 담아 노래하신 소프라노 김미자 선배님의 열정적인 연주와, 네명의 NY 남성 성악가들, 필하모니아 보스턴 챔버오케스트라의 출중한 연주,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한여름밤의 꿈을 꾸며 들뜨게 해 주었습니다. 후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들의 힘이 카네기 축하 공연을 가능케 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동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프라노 김미자 (음대 62), 지휘자 김유원 (음대 07),

필하모니아 보스턴 챔버오케스트라의 첫곡 Grieg의 The Holberg Suite 서곡이 정중하고도 기품있게 시작될때 600 좌석을 채운 관객들은 아름다운 한여름밤의 꿈같은 음악소리에 숨을죽였다. 22명의 솔로리스트가 모인 챔버오케스트라가 만들어 내는 음악은 출중하고 원숙한 기량으로 풍요로이 흐르며 우아하고도 화려한 색깔로 휘몰아쳤다. 라벨 7중주, 슈만 5중주가 만들어 낸 섬세한 아름다운 연주는 한여름밤의 빛나는 별처럼 반짝였다. 바이올린 솔리스트 김현정(음대 02)이 협연한 Vivaldi 'The Four Seasons' 중 'Summer 연주는, 뛰어난 기량으로 휘몰아치는 프레스토를 열연하며 감성적이고도 열정적인 연주로 Summer Fantasy 를 기대하는 관객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특별히 이번 음악회의 하이라이트였던 소프라노 김미자(음대 62) 동문은 첫곡인 G. Handel의 오페라 'Rinaldo' 중 "울게 하소서"로 처음부터 좌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어진 G. Caccini 작곡 'Ave Maria', 하프와 함께 연주한 드블락의 오페라 'Rusalka' 중 "Song to the moon", 김성태 작곡의 "동심초" 등의 레퍼토리를 혼신의 힘을 다해 노래할때 그의 호소력있는 감성과 어우러진 드라마틱한 열정은 오랫동안 관객들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머물렀다. “음악은 나의 인생이었고 노래는 나의 사랑이었다”고 회고하는 김미자 씨는 76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관객을 매료시키는 호소력 짙은 음성과 고운 자태로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고희의 나이에 부르는 그의 노래는 긴 인생여정의 이야기가 더해져 더욱 아름답고 가슴저리게 다가오는 감동의 연주였다.



남성사중창, 바리톤 한경진(음 02), 테너 문현호(음 02), 노영환(음 09), 장수훈(음 09)

NY의 성악가 바리톤 한경진의 솔로, 테너 문현호와의 오페라 아리아 듀엣 노영환, 장수훈과의 남성사중창 '항수' 우정의 노래 열창은 힘차고 싱그러워 우리의 젊은 학생시절이 떠오르며 서울대 동문들의 동문지애를 다시금 절감하게 했다.

분단의 슬픔과 애절한 그리움의 마음을 담은 앵콜곡 '그리운 금강산'은 수많은 사연으로 눈시울을 적시는 관객들의 감동과 함께 모두 한마음 되며 뉴욕 카네기홀의 무대가 성대히 막을 내렸다.

22명의 챔버연주자 중 18명의 동문 연주자들, 김유원 지휘자 (음 07), 소프라노 김미자(음 62) 바리톤 한경진(음 02), 테너 문현호(음 02), 노영환(음 09), 장수훈(음 09) 연주자들의 뛰어난 실력이 돋보인 음악회였기에 서울대 미주동창회 음악회의 빛나는 별처럼 반짝였다. 바이올린 솔리스트 김현정(음대 02)이 협연한 Vivaldi 'The Four Seasons' 중 'Summer 연주는, 뛰어난 기량으로 휘몰아치는 프레스토를 열연하며 감성적이고도 열정적인 연주로 Summer Fantasy 를 기대하는 관객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Coming Concert 로는 10월 12일 가을사랑- Fall in Love, 12월 12일 카네기 공연과 2020년 5월 19일부터 열릴간 한국 CBS 초청 연주로 롯데 콘서트홀 연주와 지방 연주를 앞두고 있다.



제28차 평의원회 지역동창회 회장단 모임

"각 지역의 시행착오를 거울 삼자"



뒤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송세진 미네소타 동창회장, 유시영 코네티컷 회장, 김동광 오하이오 동문, 정평희 워싱턴 DC 회장, 윤은상 뉴잉글랜드 회장, 서갑식 테네시 동문, 김병용 시카고 회장, 최경선 북가주 동문, 노명호 차기 회장, 신용남 회장, 한귀희 남가주 회장

- **일시:** 2019년 6월 23일 오전 10시  
 - **장소:** Conference room  
**Double Tree by Hilton Hotel, Fort Lee**  
 - **제목:** 제28차 평의원회 지역동창회 회장단 모임  
 - **참석자:** 우측 명단

- **신응남 (미주동창회 회장)**

지역 회장님들께서 동창회를 운영하시며 겪는 애로 사항, 건의 사항, 권장할 만한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시행착오를 거울 삼았으면 좋겠다.

- **한귀희 (남가주 지부 회장)**

- 80학번 이후의 젊은 동문들로 임원진을 구성하여 젊은 동문들을 영입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 세대간의 의견 격차를 좁히기 위해 젊은 동문들과 소통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행사 후, 뒷풀이를 적극 활용하고 함께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 usps mail로 전체 동문들께 우편 발송을 함으로써 동문 주소록 update, 회비 납부 등을 장려하고 있다.

- **정평희 (워싱턴 DC 지부 회장)**

- 그동안 워싱턴 지부는 젊은 동문들과 꾸준히 교류를 이어온 결과로 여러 행사에 많은 젊은 동문들이 참여 하여서 동문회의의 판을 바꾸어 놓았읍니다. 지난 연도에 진행한 사업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 회원 명부 Update: 전화와 이메일로 많은 분들을 접촉하여 정리하였고 또 단과 대학 동문회를 통하여 회원 리스트를 받았읍니다. 현재는 약 500명 정도가 우리 명단에 update되어 있습니다.
  2. eNewsletter: 지부 회원들의 동정과 행사를 매월 뉴스레터로 만들어 이메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3. 사료수 지원: 젊은 멤버들을 위하여 모임을 주선하고 (유영준 담당) 재정적 후원 더하여 참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4. Credit Card: 회비를 credit card로 받기 시작하여 쉽게 회비와 이사회비를 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동문들이 card로 회비를 냈습니다.
  5. 행사 Upgrade: Longwood Garden 관광, Job Search Seminar, 정규 하이킹 모임 등을 통하여 폭 넓게 여러 동문들을 참여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6. 번개탕: 아크로 폴리스 회원 (75학번부터 99학번까지)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으로 영화 관람, wine tasting, dinner 등이 있습니다.
  7. 장학금 지원: 동문들의 많은 지원으로 9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여러 맞춤형 행사와 변화를 통하여 inactive 했던 동문들이 점점 더 많이 행사에 참여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사료수 (2000학번 이후)와 아크로폴리스(75-99

학번) 모임이 활성화 되어서 비슷한 연령의 동문들이 모여 교제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지부에서는 젊은 동문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계속 그들과 교제하고 모임을 지원을 할 것입니다. 동문들에게 다가가는 행사들을 통하여 더 많은 동문과 접촉을 하며 또 서울대 동문회가 우리 미주 사회에서 한인 사회의 중심점 역할을 하기 위하여 노력 할 것입니다.

- **김병용 (시카고 지부 회장)**

- 미주 총동창 건의 사항:
1. 평의원 회의 안건: 자기평의원 회의 안건을 정하여 일년동안 지역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평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2. 분담금: 현실에 맞게 조정. 미주 총동창회 1년 예산을 반영하여 조절한다. 한국 총동창회 회보는 지역 회장에게만 발송. 지역 동문들에게 적시에 배부할 수가 없다
  3. 미주 총동창회 운영 예산: 운영 자금 식감이 필요하다. 행사에 치중하는 것보다 내실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다. 모든 행사는 지역 동문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1년에 한번 총회를 하는 것만이 이월까
  4. 브레인네트웍: 지부 동문들이 몇명이나 참석하는가? 진정 학술적인 모임이라면 미주뿐만 아니라, 세계 동문들이 참석할 것이다
  5. 장학생모집: 각지부에서 하고 있으니 지부에 맡기고, 작은 지부는 인근 지부에 지원할 수 있게 한다
  6. 신문 발행: 매월 신문 발간하는데 원고 모집에 힘들다고 하니 면수를 줄이고, 매월보다 격월로 발행 회수를 줄인다
  7. 회장임기: 새 회장은 7/1부터 시작, 6/30까지는 현 회장이 주관하여야 한다
  8. 총회는 모든 동문들이 참석하고, 평의원회의는 전일에 개최하여 결정 사항을 총회에 발표

시카고 지부 소식

1. 400여명의 동문이라 규모가 적당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 동아리모임: 각종 동아리 모임이 담당 동문이 중심이 되어 잘 운영되고 있다. 미식가, 독서, 음악, 미술, 스포츠, 매월 수요일프

- 모임, 매주 Dance 모임 등
3. 관악 클럽: 총동창회의 후원(매년 \$1,000)으로 격월로 잘 모이고 있으며 스포츠를 통하여 동문 가족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총동창회에 임원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음
4. 골든 클럽: 매월 첫 목요일에 부부 포함 70여 명이 모여 아침식사 후 생활 지혜 나누기를 하며 매월 세미나를 개최, 년 2회 여행도 한다.

- **김동광 (오하이오 지부 동문)**

오하이오주에는 동문이 클리블랜드, 콜럼버스, 신시네티에 드문드문 거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므로 한 곳에 모이기가 쉽지 않다. 누가 술선수범해 동창회 모임을 주선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자연히 회비 내는 분, 회보 받는 분 명단 등을 논하기도 생소하다. 작은 지부지만 미주동창회 차원에서 배려가 필요하다.

- **서갑식 (테네시 지부 동문)**

테네시주는 동문 숫자도 많지 않고 지부 동창회로 승격되진 4년밖에 안된다. 작은 지부이므로 Recognition이 필요하다.

- **최경선 (북가주 지부 동문)**

동창회비를 내지 않아도 회보를 끊지 않고 꾸준히 우송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북가주의 경우 주변에서 구독료를 내는 분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윤은상 (뉴잉글랜드지부 회장)**

동창회 총회 때 여기 계산 서갑식 동문이 참석하신 적이 있다. 뉴잉글랜드 지부는 운영 방법이 다른 지부와 조금 다르다. 원래 지부 동문들로부터 동창회비를 걷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안받았다. 동문수가 200여 명 정도 되는데, 평균 60명 정도 참여하고 액티브한 동문이 35~40명 정도다. 30명의 이사들로 이사회를 운영하는데 그때그때 이사회비를 걷는다. 다시 오래전 방식으로 모든 동문들에게 동창회비를 내라고 해야할지 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지부 분담금을 회비 안에 포함시킬지도 논의할 예정이다.

윤 회장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미주 동창회는 26개의 지부가 있는데 미네소타만이 유일하게 매년 지부 분담금을 불평합니

- **송세진 (미네소타 지부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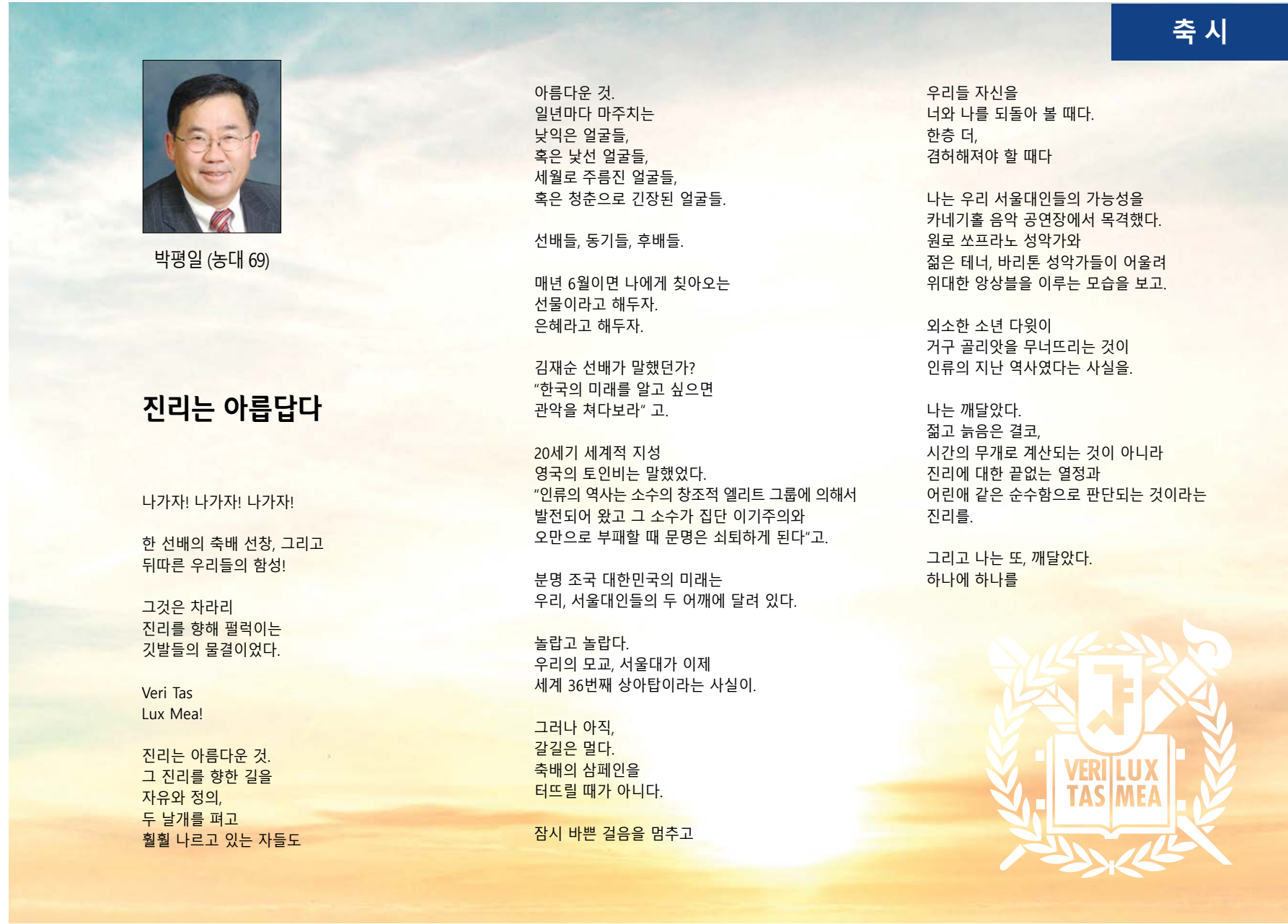
미네소타지부 집행부는 지난 6개월 동안 무척 바빴다. 송세진 신임 회장이 임기를 막시작한 1월 15일 화요일에 U of Minnesota visiting professor로 와 있는 모교의 서교수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2주간 모교에서 온 20여 명의 학부생들이 U of M에서 다양한 강의로 듣고 투어도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미네소타 동문회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번개모임이 필요한 상황이었었는데, 고맙게도 김권식 동문(공대 61)께서 1월 19일(토) 저녁에 학생들과 인솔교수, 그리고 미네소타 동문들을 자택에 초대하여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 가곡도 함께 부르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2월 23일(토)에는 집행부 모임이 송세진 회장 자택에서 열렸고, 3월 30일(토)에는 1차 이사회가 다시 김권식 동문댁에서 열렸는데, 이사 13명과 가족, 게스트 등이 모여 2019년 사업계획을 의논하고 즐거운 디너 시간을 가졌다. 4월 23일에는 집행부가 봄야유회 준비모임을 가졌고, 5월 4일(토)에는 St. Paul 근처의 Falcon Heights Community Park에서 약 50명의 동문/가족이 참가한 봄야유회를 가졌다. 5월 25일(토)에는 Eagle Valley Golf Course에서 화창한 날씨속에 동문, 동문가족, 게스트를 포함한 32명이 참가한 춘계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6월 말에는 송세진 회장이 제28차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에 참가하였다.

향후 6개월간 진행될 행사는, 곧 7월 13일에 여름 골프대회가 있고, 8월 24일에 서울대/연대/고대 3개교 친선 골프대회를 우리지부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9월 7일에 가을 골프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11월 2일에는 집행부 모임, 12월 13일(금)에는 정기총회/송년파티가 예정되어 있다. 전체행사와는 별개로 학생 봄/가을 모임, 여성 봄/가을 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며, 가을에는 미네소타 대학 신입생 환영회, 학생 주관 학술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다.

미네소타지부 이사는 현재 58명인데, 회비를 납부한 active member는 2017년에 28명, 2018년에는 26명이다. 대략적으로, 명부상 이사의 절반 가량이 active member인 것이다. Active member 숫자와 관련하여 항상 제기되는 문제가 미주동창회에 납부하는 지부 분담금이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책정된 미네소타 지부 분담금은 \$600이지만 역대 회장들이 미주 동창회장에 전화로 부탁하여 \$300만 내왔다고 한다. 올해도 \$300만 납부하지는 어떤 임원의 건의대로 신임 송 회장이 윤상재 전회장이 부탁을 했다가 흔이 나고 \$600을 납부하였다.

윤 회장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미주 동창회는 26개의 지부가 있는데 미네소타만이 유일하게 매년 지부 분담금을 불평합니



박병일 (총대 69)

진리는 아름답다

나가지! 나가지! 나가지!

한 선배의 촉매 선창, 그리고 뒤따른 우리들의 함성!

그것은 차라리 진리를 향해 필력은 깃발들의 물결이었다.

Veri Tas Lux Meal

진리는 아름다운 것. 그 진리를 향한 길을 자유와 정의, 두 날개를 펴고 훨훨 나르고 있는 자들도

아름다운 것. 일년마다 마주치는 낯익은 얼굴들, 혹은 낯선 얼굴들, 세월로 주름진 얼굴들, 혹은 청춘으로 긴장된 얼굴들.

선배들, 동기들, 후배들.

매년 6월이면 나에게 찾아오는 선물이라고 해도자. 은혜라고 해도자.

김재순 선배가 말했는가? "한국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권력을 쳐다보라"고.

20세기 세계적 지성 영국의 토인비는 말했다. "인류의 역사는 소수의 창조적 엘리트 그룹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고 그 소수가 집단 이기주의와 오만으로 부패할 때 문명은 쇠퇴하게 된다"고.

분명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서울대인들의 두 어깨에 달려 있다.

놀랍고 놀랍다. 우리의 모교, 서울대가 이제 세계 36번째 상아탑이라는 사실이.

그러나 아직, 같길은 멀다. 촉매의 삼패인을 떠뜨릴 때가 아니다.

잠시 바쁜 걸음을 멈추고

우리들 자신을 너와 나를 되돌아 볼 때다. 한층 더, 겸허해져야 할 때다

나는 우리 서울대인들의 가능성을 카네기홀 음악 공연장에서 목격했다. 원로 쏘프라노 성악가와 젊은 테너, 바리톤 성악가들이 어울려 위대한 앙상블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외소한 소년 다투이 거구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이 인류의 지난 역사였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다. 젊고 늙음은 결코, 시간의 무게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끝없는 열정과 어린애 같은 순수함으로 판단되는 것이라는 진리를.

그리고 나는 또, 깨달았다. 하나에 하나를

다. 기금이 없으니 당연한 말씀이지요. 이해가 되고 동정이 갑니다. 미주 동창회는 매년 \$11,000을 서울의 총동창회에 보냅니다. 저희들이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서이지요. 작년에도 황효숙 회장님이 300불 밖에는 못하겠다고 하시면서 300불을 보내 왔습니다. 저는 분담금을 강제로 받아야 할 능력이나 권력이 없습니다. 모두 선의(Good Will)에 의존하기때문입니다. 그 Good Will이 동창회의 근간입니다. 선의가 없으면 동창회가 있을 수 없지요... (이하 생략)"

지부 분담금에 관해서는 이번 평의원회의와 지부 회장단 모임에서 많이 토의되었다. 신응남 신임 회장께서도 합리적인 formula를 만들어서 지부 분담금을 새로 책정하겠다고 하시니 우리 지부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끝으로, 지부 활동은 누가 회장이 되느냐에 따라 활동이 왕성하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한다. 정치적으로나 재정적 자원이 큰 회장이 지부를 이끌면 활동이 왕성해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축되는 것이다. 워싱턴 DC 지부 정평희 회장 (공대 71)은 동문회를 위해 일하고 싶어서 자원하여 회장이 되겠다고 한다. 그런데, 미네소타와 같은 소규모 지부의 특징은 아무도 회장을 맡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겨우 회장에 선출되면 회장은 같이 일할 총무이사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미네소타 지부의 경우 이러한 어려움을 최근에 단antly 겪었다. 1년 전에 송회장이 차기회장에 선출되었지만 1년 동안 총무를 찾을 수 없어서 지난 연말 총회에서

총무없이 새 집행부가 출범했다. 다행히 1월에 차재호 동문(총대 84)이 자원하여 집행부가 꾸러지고 1월 후반에는 첫 집행부 모임을 가질 수 있었다.

차 총무가 선임되기전까지는 송 회장이 동문회를 이끄는 것이 너무 막막하여 연락 업무를 강제로 받아야 할 능력이나 권리가 없습니다. 모두 총무를 비롯한 임원진이 회장을 잘 support하여 미네소타 지부는 예전대로 잘 굴러가고 있다. 황효숙 전회장(사대 65)께서 미네소타 지부를 이끈 것처럼 워싱턴 DC 지부가 젊은 세대를 위해 맞춤형 모임을 활성화하는 것처럼, 미네소타 지부도 다양한 맞춤형 그룹 모임을 많이 만들어서 그 그룹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의지를 다져본다.

- **전무식 (필라 지부 회장)**

필라지역 서울대 동창회는 인근의 뉴욕이나 워싱턴 지역과 달리 신입회원 수는 거의 증가하지 않는 반면 기존 회원수는 매년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회원의 노령화, 은퇴, 및 타 주로의 이주(자녀에게로 가까이, 혹은 좀 더 온화한 남부나 서부로)하는 경우와 사망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불과 10여년 전 만 해도 거의 180여 명 수준에서 현재는 겨우 60여 명으로 급감한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약 30여 명은 노환이나 노쇠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고 겨우 30명 미만이 참여하고 회비를 내어서 지난 일년간 회비나 이사회 명목으로 \$3,200이 감했는데 그 중에 \$1,500은 필라 지역 분담금으로 지불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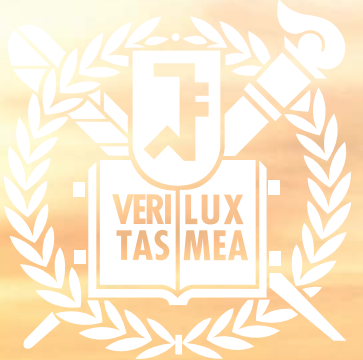
이 문제로 인하여 내부의 불평은 항상 있어 왔지만 "아무리 주워도 모닥불에 손은 녹이지 않는다"는 소위 양반 근성(?)과 자존심 체면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함구하고 참아 왔는데 이제 회장직을 이임하는 제가 엄치(?) 불고하고 총대를 메고 이 문제를 이번 평의원 회의에서 공식적 의제 중 하나로 채택해 달라고 하는 이메일을 회장께 보내고 이번에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다행히 여러 군소 지역 회장님들께서 호응해 주시고 특별히 신임 신응남 회장님께서 이 문제를 더 여구 검토해서 발표해 주겠다는 긍정적 반응을 주셨습니다.

- **전무식 (필라 지부 회장)**

이 문제에 관한 토의 중 어느 분은 차재에 미주동창회도 본국 총동창회에서 부과하는 미주지역 분담금을 거절하고 또 본부에서 매년 보내는 보조금도 아예 받지도 말자는 극단적인 말씀도 있었지만 본국 총동창회와 미주 지역간에 지금까지 내려온 좋은 전통을 그렇게 끝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명호 (미주동창회 차기 회장)**

어떤 회장일 때는 동창회가 침체되고, 또 어느 분일 때는 활성화 되고를 반복하면 결국 회장마다 원점에서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지부장이 바뀔 때마다 동창회 운영에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그래야 동창회가 발전을 한다.



이번 평의원 회의에 참석해서 보람과 좋은 추억을 갖게 되었습니다. 쾌적한 자리와 맛있는 음식, 격조 높은 음악회와 즐거웠던 관광, 짜임새 있는 회의 진행과 모든 것에 빈틈없는 철저한 준비를 해주신 회장님들과 준비위원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며 감사드립니다

- **유시영 (커네티컷 지부 회장)**

저희는 얼마 안되는 참가 회원이지만 \$200의 분담금은 반이 한국에 가지만 연초에 달력과 발행되는 신문이 10부씩 서울에서 옴으로 배당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많은 수천 미주 신문이 배달되고 있으니 저희도 10부 정도를 보내 주십시오.

- **노명호 (미주동창회 차기 회장)**

어떤 회장일 때는 동창회가 침체되고, 또 어느 분일 때는 활성화 되고를 반복하면 결국 회장마다 원점에서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지부장이 바뀔 때마다 동창회 운영에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그래야 동창회가 발전을 한다.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지역 동창회 소식 및 동문 동정

싱가폴 동창회 김호현 (경영 84) 회장 부부 환영 모임

북가주 동창회



김호현 싱가포르 동문회 회장님 부부와 북가주 동창회 강정수 이사장님 내외

【기사: 곽준경 (법대 75)】
지난 6월 11일 북가주 Silicon Valley의 Cupertino에 위치한 Lei Garden 식당에서 가족 행사 및 자녀 방문차 북가주 지역을 방문한 서울대 싱가포르 동창회 김호현 (경영 84) 회장 부부를 환영하는 조촐한 Luncheon 모임이 있었다. 이 모임에는 북가주 동창회 강정수 이사장 (문리 61)과 곽준경 동창회장 (법대 75) 이 부부 동반으로 같이 참석하여 맛있는 Dim Sum 요리와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담소의 시간을 가졌다.

식사후 근처에 위치한 한국 베이커리 Paris Baguette로 장소를 옮겨 김호현 회장이 서울대 싱가포르 동문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시작하여 동문 모임과 활동을 설명하였고 북가주 동창회도 지부 활동과 모임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조국을 떠나 해외에 정착하고 있는 동문들간의 상호 관심사를 얘기하면서 3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이야기 꽃을 피웠다. 서로 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연락하여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였다.

하계 야유회, 110명의 동문과 가족 참여

북가주 동창회, 동문간 반가운 교류와 친목 도모



단체 기념 촬영

【기사: 곽준경 (법대 75)】
북가주 동창회(회장 곽준경, 법대75) 하계 야유회가 화창한 여름날씨 아래 6월 22일(토)에 Silicon Valley의 Cupertino에 위치한 Stevens Creek County Park에서 110명의 많은 동문 및 가족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49학번에서 대선배님으로부터 06학번 청년 동문까지 아우르는 동창회 모임으로 준비위원회가 당초 예상한 80여 명의 참석 인원 숫자를 훨씬 초과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즐거운 고민과 함께 음식을 추가로 오더하고 주차문제도 염려를 많이 하였으나 참석 동문들에게 미리 양해 인내를 발송하여 동문들의 협조로 순조롭게 행사를 치루었다.

Fire 금지령으로 BBQ를 못하였던 아쉬움이 있었으나, 올해는 선배 동문들이 불고기, 궁지 등을 BBQ하면서 동문분들이 손수 조리하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음료를 잔치집 분위기로 서로 권하면서 맛있게 즐겼다. 점심식사 후, 동창회 임원들의 소개와 인사 가 있었고, 박찬호 총무(자연대 81)와 이상우 동문(문리72)의 재치있는 사회로 웃음을 선사하면서 새로이 참석한 20여 동문들에 대한 따뜻한 환영과 함께 참석하신 모든 동문분들의 각자 개인 소개가 이어졌으며, 그리운 선배 후 동문간의 반가운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였다. 짧은 만남을 아쉬워하는 가운데 참석한 많은 동문들이 북가주동창회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느끼면서 다음 동창회 행사에도 꼭 나오겠다고 다짐하였다.

2018년 야유회는 산불사태로 인한 Charcoal

"72년 학번차이 동문이 한자리에"

워싱턴 DC 동창회, 신응남 미주동창회 회장 방문



정평희 회장 (공대 71), 신응남 회장 (농대 70), 방은호 동문 (약대 43)

【기사: 이은수 (인문대 15), 이수연 (사대 82)】
뉴욕에서부터 먼길을 오신 신응남 (농대 70) 미주 총동문회 회장님 내외분을 모신 6월 28일 아난데일 설악가든에서의 모임은 상상할 수 없는 세대차를 극복하고 함께 어울려 젊은 동문 활동을 지원하고 논의할 수 있었던 중요한 자리였다. 특히나 동문회를 누구보다 더 생각하고 그 생각들을 모아 실제로 운영해주는 분들이 모여 더 의미있었다. 정평희 (공대 71), 백 순 (법대 58), 방은호 (약대 43), 함은선 (음대 77), 한정희 (미대 81), 박문수 (공대 82), 이수연 (사범대 82), 이관후 (공대 87), 고일남 (자연대 86), 임갑렬 (인문대 87), 나영은 (가정대 86), 박평일 (농대 69), 류영준 (공대 02), 이은수 (인문대 15), 박애리 (사회대 07), 오인환 (문리대 63), 최동호 (문리대 68), 신응남 (농대 70) 회장님 내외, 문향식 (농대 81) 동문을 포함 총 20명이 참석하였다.

이 날 모임의 하이라이트는 동문회 최고령 방은호 (약대 43년 입학) 선배님과 최연소 이은수(인문대 15년 입학)가 같이 앉아 식사를 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서울대 역사상 가장 큰 세대차, 72학번 차의 만남이었을 것이다.



방은호 (약대 43), 이은수 (인문대 15) 동문

정평희 회장님께서 워싱턴 동문회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 말씀하셨고 워싱턴 지부의 젊은 동문 활동사례가 좋은 선례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하셨다. 미주 총동창회 회장님께서 미주 지역 내 모든 지부가 연결성을 갖고 공동체 의식을 가질 것을 요청하셨다. 그 뒤에는 이제까지 동창간의 유대 강화와 교류 활성화를 통해 미주 동창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방은호 선배님께 서울대 총장

님의 감사패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다. 방은호 동문은 2003년부터 음악 애호가 단체인 Korea Concert society 회장을 역임하며 Violinist 김지연, 데이빗 김, 김수빈, Cellist 패트릭 지, 데니얼 리 씨 등을 발굴, Kennedy Center 데뷔 무대를 꾸며주며 이들을 세계적인 음악가로 발돋움하게 했다.

남가주 동문회와 함께 워싱턴 동문회가 가장 활발한 동문회 중 하나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비결은 임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과 행동력이 바탕이 되었고, 그 이전에 모이면 즐거운 분위기가 되어졌기 때문이라고 소개되었다. 크고 작은 소모임으로 같은 취미를 공유하면서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고 분위기가 경직되지 않고 동문 가족들 모두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되니 자발적으로 임원을 하게 되고, 동기부여된 임원들이 더 좋은 동문회를 꾸려나갈 수 있는 선순환이 이어진 것이다. 조금 더 의미있는 동문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 사회 학생들에 대한 멘토링, 불우이웃 돕기 행사 등의 사회적 활동도 넓혀나가고, 단순한 친목 모임뿐 아니라 지역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임으로 확장되어 나가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방은호 동문 (약대 43)의 자기 소개와 곁에 앉아 있는 이은수 동문 (인문대 15)

다음 주제로 00학번 이하 모임 '사로운가운'은 영되는 배경과 활동사항이 소개되었다. 사로운가운에 대해 회장님께서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필요성을 그 배경으로 꼽았다. 누군가가 깃발을 꽂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실제로 기존 동문회 임원으로 활동하던 분들이 깃발을 꽂아주시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설명이

"우거진 정원의 초목 속에서 즉석 피자과 불고기 바베큐로 여름의 향연"

뉴욕지역 동창회, 골든 클럽 피자데이 행사



참가자 기념촬영

【기사제공: 강교숙】
2019년 6월 19일(수) 오전 11시~ 오후 4시, 작년 이어 두 번째 피크닉 행사를 작년과 같이, 한태진 회원 자택 뒷뜰에서 손대홍 회원 주관으로 Pizza Party가 열렸다.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 86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대성황이었다. 조금 흐린 날씨로 약간의 비가 오락가락 했지만 곧 멈추어서 피크닉 피자 파티는 잘 진행되었다.

날적인 물에서 맛있는 샐러드에 이어 정통 이태리 피자따끈따끈하게 서브 되었다.

솜씨 좋은 손대홍 회원이 직접 반죽하여 토핑을 얹어 구운 피자는 회원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한쪽에서 즉석 구워낸 맛있는 불고기 바베큐를 즐기고 오랜만에 만난 회원(선, 후배 동문)과 대화하며 우거진 정원의 초목 속에 맛난 음식을 나누며 포도주로 서로 건배하니, 원근각처에서 모여 즐거움을 나누는 시원한 여름의 향연이었다.

김정필(공대) 회원의 기타 연주로 다 같이 추억의 노래를 싱어롱을 하고, 이진구(농대) 회원의 신나는 하모니카 연주, 또한 다른 회원



사진 1

의 만도린 연주, 홍정표 (음대) 회원의 독창, 배상규 (약대) 회원의 독창 등으로 여흥을 이어가고, 김평우 동문 (법대)의 한국소식과 국

남가주 평의원 워싱턴 DC 문화 탐방 및 뉴욕 관광

남가주 총동창회, 노명호 차기회장 당선 축하



【기사: 남가주 총동창회】
제28차 평의원을 마친 후 남가주 평의원 과 가족 등 20명은 노명호 차기회장의 당선 축하를 겸한 2박 3일의 Washington DC 문화 탐방 및 New York 관광길에 올랐다. 만장일치로 당선된 노명호(공대 61) 상임이사와

다. 그 시작을 할 때 선배님들의 재정적 지원, 함께 참석해주는 시간 투자와 후배에 대한 열정이 큰 자원이었다는 점과 물질적 지원 이외에 선배들이 후배의 눈높이에서 공감하고 수평적 관계를 만든 것이 유요 적절

동문 및 가족들은 몇십년 전의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 즐거운 추억들을 쌓았다.

국회의사당, 백악관,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 제퍼슨 기념관, 링컨 기념관 등 워싱턴 DC 시내 관광을 하였다. 한국전 참전용사 기

했다고 평가해 주었다. 미주 총동창회 회장님께서 워싱턴 동문회의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셨고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말씀을 전하셨다. 워싱턴 동문회와 뉴욕 동문회, 미주 동문회와 다른 타국 동문회 사이



넬탑을 찾았을 때는 마침 내리는 보슬비로 우의를 입고 진진하고 있는 38명의 동상 하나하나의 표정까지도 더욱 리얼하게 가슴에 닿아 모두들 숙연한 분위기로 참전용사들을 향한 고마움으로 가슴이 뭉클함을 느꼈다.

둘째날은 아침 일찍 루레이 동굴을 찾아 기암괴석이 모여 있는 자연의 신비로움에 감탄하며 남가주와는 또다른 매력을 마음껏 감상하는 시간을 보냈다. 다시 돌아온 뉴욕에서 패리호를 타고 자유의 여신상을 가까이에서 보고 One Trade Center를 둘러보는 등으로 일정을 끝내고 LA 공항으로 향했다.

의 교류도 계획하신다고 하셨다. 마지막으로 미주 동문회가 한국 학생들에게 인턴쉽 기회 제공하는 방법, 국제협력본부와의 연결할 수 있는 방법, SNS, 뉴스레터와 같은 매체를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동문회를 홍보

민 의식에 대해 간단한 소개가 있었다.

지난 1년간 수고하신 뉴욕지부 동창회 회장 (손대홍 동문), 이사장 (한태진 동문)을 위한 케익 커팅도 있었다. 케익 커팅 전, 손대홍 동문은 임기 동안 골든 클럽 회원의 많은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사진 1)

동분서주 분주하게 도우시는 임원과 여러 회원의 노력으로 많은 참가자가 삶을 나누며 편안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 주최 측과 자택을 제공하시고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고 지원하신 한태진 회원 부부님께 감사드립니다.



골든 클럽 컴퓨터 연구회

또한 집에서는 맛볼 수 없는 피자를 만들어 주신 손대홍 부부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린 자녀가 좋아했던 피자였는데, 이제 그들이 장성하여 떠난 지금 그때는 그들이 왜 피자를 그리 좋아했는 이해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이해하게 되었다. 색다른 미국의 정서와 맛이 기분을 좋게하는 것 같다. 뒤늦게나마 나도 이 맛에 눈이 뜨이게 되었나보다. 오늘 맛이 아주 좋았던 피자! 아마도 이 피자 맛을 본 이는 내년에도 어디서나 피자 파티를 한다는 소식이 있기를 벌써부터 기다릴 지도 모른다.



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가지 구체적인 의견이 제시되었다.





송세진 (치대 78)

### 제28차 평의원의회 참가 후기

"미국에 40년 살았어도 미국 동문 전체가 모이는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것은 몰랐어요" 하면서 마지막 West Point 에서 돌아오는 관광버스 안에서 어떤 분이 계속 감탄사를 연 발하셨다. 첫날 특강으로부터 환영찬, 조찬, 오찬, 축하음학회, spouse program, West Point 관광 등 3일간에 걸친 행사가 기억에 남도록 너무 좋았단 말씀이러라.

하기 쉽고 관심이 가는 주제였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모든 동문이 빨려드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다. 필자도 강연을 듣고나서, "Wow!" 하는 탄성이 속에서 터졌다. 이번 행사에서 이 강연 하나만으로도 내가 회의에 참석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장 교수의 연구결론은 다음과 같다. 캘리포니아 Riverside에 위치한 파차차 캠프는

필자는 평생 처음으로 모교 미주동창회 평의원의회에 참가하기 위해 6월 20일에 MSP (Minneapolis-St. Paul) Airport를 출발했다. 미주동창회보를 통해서 꾸준히 평의원의회 이모저모에 대한 소식을 보고 들었지만 지금까지 이것은 필자에게 전혀 관심사항이 아니었다. 아마 미국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동문들의 모임이겠지 하고,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내가 이 모임에 참석할 형편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MSP Airport를 출발하기 전부터 나의 가슴을 누르고 있었다.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지 못했고, 이민 온지 10년되었지만 아직 재정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내가 성공한 다른 분들과 이 모임에서 어떻게 어울릴까? 혹시 하와이 지방에서 성낙길 회장(문리 77)이 온다면 이분과 어울릴 수 있을까? 성회장은 치대 동기 손재연 동문의 부군이라서 몇년전 하와이에서 뵈 적이 있어서 그래도 만나면 편할 것 같았다.



솔직히, 이번 여행에서도 평의원의회는 나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평의원의회에서는 별로 기대하는 것이 없었다. 회의기간에, 뉴욕 Lower Manhattan에서 2주전에 탄생한 외손자만 보고 미네소타에 돌아와도 내겐 큰 보람이라고 생각하며 비행기를 탄 것이다. 뉴욕의 지리에 익숙하지 못한 필자이지만 3일간 Lower Manhattan에서 Hudson River를 따라 George Washington Bridge를 건너 회의장소인 뉴저지 Fort Lee까지 차를 몰고 왔다 갔다 했다. 극심한 교통 체증도 있었지만 뉴욕만의 특이한 매력에 traffic jam은 전혀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다.

미국 최초 최대 한인타운으로 "도산 공화국"이었다. 이 캠프는 가족 중심 한인 공동체로 초기 미주 한인들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다" (관심있는 분은 Korean Americans: A Concise History, Edward Chang and Carol Park (2019)를 Amazon.com에서 구입해 보시길 권한다). 여담이지만, 필자는 강연을 듣기전에 장태한 교수가 시각 장애인인 줄 알았다. 2019년 5월호에 실린 연사 프로필에 눈을 감은 사진이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강연장에서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을 발견하고는 웃었다. 재미있게, 교회 부흥사와도 같이 열정적으로 하는 장 교수의 강연에 정중이 크게 호응했다.

금요일 첫날, 첫행사로 오후 특강에 참석하면서 내 입에서는 "wow"가 터지기 시작했다. 하와이에서 성 지회장은 오시지 않았다. 아무도 아는 분이 없으니 모범학생이 되어 강연을 듣기 좋은 앞자리에 앉았다. 시각을 잘하는 필자이지만 오늘은 일찍 도착하여 맨앞자리에 앉았다. 첫연사 이흥규 교수의 대 68졸업)의 "한국인의 기원과 DNA 추적", 두번째 연사 장태한 교수(Univ. of California, Riverside)의 "파차차 캠프 - 미주 최초의 한인타운" 강연이 있었다. DNA추적을 통한 한국인의 기원 연구는 한국인의 뿌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힘들어서 앞으로 연구가 더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세운 파차차 캠프 이야기는 1900년대 초반의 역사라 누구나 이해

잠깐 소란이 있었다. 같은 테이블에 있던 분들이 재빨리 그분을 모시고 밖으로 나가서 그 소동은 진정되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논란 많은 문재인 정권의 UN 대사 연설을 듣기 거부해서 그러셨나? 조태열 대사는 외교관으로서 서울대인답게 정치적 휘둘림이 없이 기조연설을 아주 잘 한 것으로 필자는 판단한다.

이상한 문건 해프닝: 첫날 등록할 때 평의원의회 2분팀에서 나누어준 가방에는 특이한 문건이 2개 들어 있었다. 첫번째는 "TO: 이재용 Samsung. 하늘이 준 기회 다시는 없다. 강기동. 6-20-2019" (2 페이지 팜플렛) 이고, 둘째는 "2100년 대한합중국. 강기동" (12페이지 booklet)이다. 둘째날 평의원의회 기타 토의 시간에 어떤 평의원이 일어나 질문을 했다. "한국이 일본을 합병한다는 글이 담긴 소책자가 어떠한 경위로 평의원 가방에 넣어지게 되었나?" 필자가 들은 뉘앙스는, "이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후원하겠다 하는 분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강기동 동문은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와 손주들과 함께 이번 행사에 오셨다.

마지막 행사 West Point, New York (US Military Academy)의 tour는 이번 행사의 백미였다. 필자를 포함한 동문8명은 tour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현장등록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 Military facility 방문이라서 며칠전에 security clearance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여튼 우리는 버스에 올라탔다. 속으로 West Point에는 가지만 tour를 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을 약간 가지고, 군유격 훈련장이 보이는 산비탈 길을 지나 드디어 학교 visitors center 입구에 도착했다. 주차장에 버스가 서자 우리그룹의 허유선 동문(가정 83)이 일어나 특유의 목소리로 카랑카랑하게 "사전등록 안하신 분은 스스로 알고 계시죠? 자수하여 광명찾자! 자, 여동분은 차에서 내리세요! Security clearance가 안되면 개별로 관광은 저기 다른 사람들과 tour하시고 나중에 여기서 만납시다" 한다.

군대 낙오병처럼 8명은 어깨가 축 늘어진 채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신응남 신협회장님은 씩씩하고 신이 나 있었다. "나를 따르라"고 하니 모두들 반신반의하며 뒤를 따라갔다. Visitors center에서 신회장님이 우리 팀 bus tour 담당 학교측 guide에게 security clearance가 되지 않은 분이 8명이라고 하니 "당신그룹은 어디서 왔나?"고 확인한다. "Seoul National University-USA alumni association"라고 하니 8명의 ID를 보자고 한다. Minnesota, Virginia, 등 8개의 driver license를 각자 보여주니까 "Okay!"였다. 다행이 지난주에 security clearance가 되지 않은 8명이 50여 명의 동문과 버스에 합류할 수 있었다. 휴우~~~~.

US Military Academy, West Point는 US Naval Academy (Annapolis, Maryland)와는 지형적으로 좀 다르다. 해군사관학교는 Chesapeake Bay 평지에 campus가 웅장하게 조성되어 있지만 육군사관학교는 뒤에 높은 산이 있고, 앞에는 Hudson River가 있다. 육사campus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아담하고 포근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를 tour하면서 모두들 아름다운 강과 산 사이에 위치한 이 캠퍼스를 좋아했다. West Point에서는아마 가장 전망이 좋은 곳으로 여겨지는 Sherburnes Redoubt (1779-1783)에서 Hudson River를 배경으로 단체사진을 찍었다. 우리는 단아하면서도 무게가 있는 학교 체를 좋아했고, 점심을 먹은 교내 Thayer Hotel도 무척 좋았다. 허드슨강을 보며 2층에서 점심을 먹고 나서 우리는 1층에 있는 MacArthur's Restaurant에 내려가 사진도 많이 찍었다. 벽에 걸린 5성장군 맥아더의 여러 oil portraits는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제는 헤어지는 시간: West Point에서 돌아오는 버스 속에서 한번도 아니고 여려번.. "나는 미국에 40년간 살았어도 미국 전체 동문이 모이는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어요" 란 Connecticut 유시영 회장(문리 68) 사모님의 감탄사는 처음 평의원의회에 참석한 필자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으며, 아마 이번 모임에 참가한 모든 평의원들과 동문가족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허유선 (가정 83)

### West Point 다녀와서...

28차 미주 서울대 평의원의회 마지막 행사는 23일 일요일, 미리 신청한 동문들과 평의원의회 장소에서 약 50마일 떨어진 미합중국의 역사적인 장소인 West Point로 알려진 United State Military Academy를 방문 하였다. 평의원의회 일주일 전 이곳을 단체로 방문하려면 단체 방문자의 이름과 성별과 생년월일 등이 들어간 manifest sheet가 72 hours 이전에 completed 되어야 한다는 정보를 입수, 각 지부의 협조로 53명의 정보를 받아서 준비를 하였다. 방문 당일에는 개인적으로 투어 신청을 하시고 조인하신 13명의 동문과 신청해 불참하신 6명의 동문 등으로, 모두 60명이 참석하였다.



West Point의 입학 조건은 17세에서 23세까지의 미 시민권자로 미혼이고, 임신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차일드 서포트 obligation이 없어야 한다고 한다. 여성은 1976년부터 입학이 허가 되었으며, 전체 인원의 15%를 차지한다고 한다.



미주 서울대 동문 그룹의 안내를 맡은 베트남 전쟁의 참전용사, 가이드 Arthur는 다른 어떤 가이드 보다 자세하게 West Point의 비밀스럽고,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재미있고, 의미있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여 주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이곳에 입학한 학생

들은 cadets이라 불리고, 4년 동안 학년에 따라 West Point에서 닉네임으로 불린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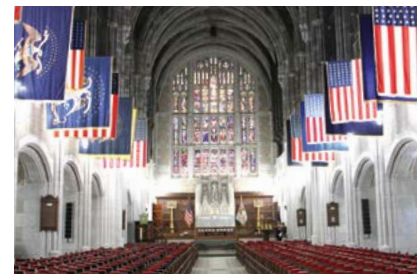
Freshmen 은 pebes, sophomores 는 yearling,



juniors 는 cows 그리고 seniors 는 firsties 본인도 왜 그렇게 불리는지 이유는 모르겠다고 했다. 나는 이분이 자신이 West Point 출신이 아니기에 닉네임이 불리는 그 관계에 대한 집단내의 파워를 존중해 주는 정중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했다.

인이라면 쓰여진 모자를 찾아가지고 기념으로도 간직하며, 훗날 그곳에 입학 할 꿈을 간직하도록 한다고 한다. 미래의 리더를 키우는 그들의 엄청난 지도력에 다시 한번 놀랐다.

한국에서 몇 년 전 베스트셀러였던 프레스



턴 피시의 책 "웨스트 포인트 처럼 하라"라는 책의 리더십 덕목의 알파벳 WESTPOINT의 단어들 Wisdom, Empathy, Superiority, Team work, Passion, Optimism, Inventiveness, Net work, Trust 단어들 만큼이나 이곳을같이 방문한 28 회 평의원 동문들 에게 의미심장한 기억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굽이쳐 있는 허드슨 강의 지형적 유리함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숨죽일 정도의 멋있는 45도 각도의 허드슨강과 반대편 광장안의 Battle Monument 너머로 훈련을 받고 있는 생도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몇주전 사고로 유명한 달리한 C Morgen (1996-2019)과 같은 타운에 산다고 Arther에게 이야기 했더니, 훈련으로 떠나는 트럭 한대를 손짓으로 보여주면서 바로 저런 트럭이었다고 말해 주었다.



"The Thayer Hotel"

우리나라에서는 한일 합방이 이루어졌던 1910년 지어졌다는 화강암의 웅장한 채를 세계 최고의 파이프 오르간을 가지고 있고, 이곳에 있는 6개의 다른 종교 건물 중 단연 으뜸일 것으로 생각되었다.

West Point의 많은 역사적인 행사를 치루는 Thayer Hotel에서의 유명한 브런치를 같이하고 짧은 각자의 자유 시간을 가진 후, 행사를 종료하였다.

참석자 명단  
강인구 부부, 김경태, 신응남, 이희만, 이용락 부부, 오인환 부부, 윤상래 부부, 노명호 부부, 민일기 부부, 유시영 부부, 김상찬 부부, 장수인 부부, 윤은상 부부, 천무식 부부, 고일석 부부, 지홍민 부부, 서갑식 부부, 윤봉수 부부, 이채진, 김미자, 김동광, 이수자, 이영인, 정태영, 서지원, 성주경, 김동희, 이영우, 백육자, 홍선례, 김병연, 최진석, 송세진, 이정수, 허유선, 유성은 가족, 이상운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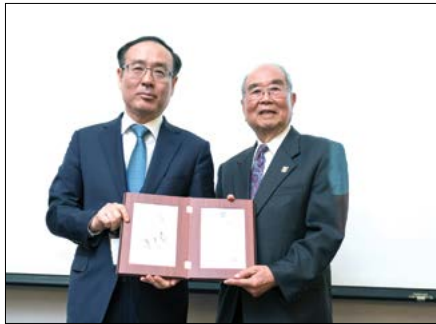


"The Thayer Hotel Restaur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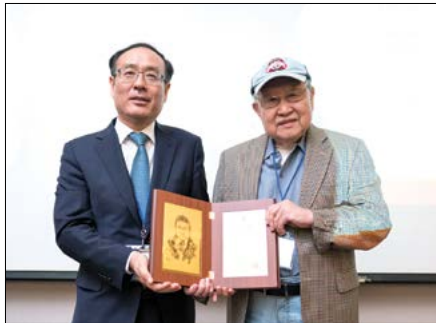
### <2019년 7월 1일 이후, 동창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보내실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USA (payable to SNUAA-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Tel: 718-463-3131 / Fax: 718-463-6789 / news@snuua.org





**총장상 (참여): 박윤수** (문리 48) 남가주  
초대 미주 동창회 회장으로 미주 동창회를 창립하여 동창 간 유대와 교류 활성화에 기여



**총장상 (영광): 강기동** (공대 53) 네바다  
반도체 기술 보급을 통해 과학 발전의 초석을 다져 국가 경제 발전에 큰 공헌



**총장상 (사회기여): 정정욱** (의대 60) 시카고  
의료인으로서 지역사회의 복지향상과 발전을 위해 기여



**총장상 (사회기여): 유성은** (의대 88) 캐롤라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 봉사 활동을 통해 한 사회의 위상 제고에 기여

**총장상 (학술): 장윤일** (공대 60) 시카고  
원자력 연구 분야 최고 권위의 Orlando Lawrence Award 수상자로 세계 원자력 발전에 기여



**총장상 (참여): 이용락** (공대 48) 시카고  
미주 동창회 제6대 회장을 역임하여 동창 간 유대 강화와 교류 활성화에 기여



**총장상 (학술): 최찬혁** (의대 57) 뉴잉글랜드  
방사선 암치료 및 연구를 통한 의학 발전과 한인 후학양성에 기여



**총장상 (영광): 조정현** (수이대 58) 필라델피아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이 미국 수의사회 인증을 받는데 기여

**총장상 (참여): 방은호** (약대 43) 워싱턴 DC  
미주 동창 간 유대강화와 교류 활성화를 통한 미주 동창회 발전에 기여

**총장상 (참여): 이준행** (공대 48) 뉴욕  
뉴욕 동창회 골든클럽 회장을 역임하고 장학기금 설립을 통한 후학양성에 기여

**총장상 (사회기여): 구경희** (의대 59) 시카고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 봉사활동을 통해 한 사회의 위상 제고에 기여

# 화보로 보는 제28차 평의원 회의

Jun. 21~23, 2019  
Doubletree by Hilton Hotel, Fort Lee, NJ



## 오세정 모교 총장 공로패 수상자

좌측부터, 정정욱, 박윤수, 이용락, 최찬혁, 오세정 총장, 조정현, 강기동, 구경희 장윤일(김병윤 대독), 유성은, 이준행 (박상원 대리)

이날 수상자 방은호 (약대 43), 이준행 (공대 48), 구경희 (의대 59), 장윤일 (공대 60) 동문은 사정으로 불참.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Lee 상운, Lees 가족, 장선희, 김재성, 정태영, 이영민, Lees 가족, Mrs. Lee



오인환, 신수정, 오령거, 윤상래, 강인구 동문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홍선례, 이상강, 성주경, 최진석, 손영아, 최경선, 노명호, 유혜연, 김경애 동문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김병윤, 이영우, 김동희, Mrs. 김병윤, 이경섭 (Mr. 윤봉수), 윤봉수, 이용락, Mrs. 이용락, Mrs. 김동광, 김동광 동문



신용남 회장, 조태열 UN 대사, 오세정 총장, 이만택 미주재단 이사장



서중민, 주기목, 박영철, 노명호, 윤상래, 에드워드강 동문



한태진 뉴욕지부 이사장, 오세정 총장, 신용남 회장, 손대홍 뉴욕지부 회장



김민중 미주재단 국장, 오세정 총장, 이만택 미주재단 이사장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Mrs. 이만택, 박윤수, Mrs. 박윤수, Mrs. 윤상래, 윤상래, 조태열 UN 대사, 오세정 총장, 신수정 회장, 신용남 회장, 이희만 동문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김병원, 이상강, 김경숙, 노명호, Mrs. 노명호, Mrs. 민일기, 민일기, 한귀희, 송세진, 조정시 동문



유시영, Mrs. 유시영, 김상찬, Mrs. 김상찬, 서지원, Mrs. 서지원, Mrs. 김병연, 김병연 동문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손재욱, Mrs. 김광호, 김광호, ?, Mrs. 오인환, 오인환, 이종규 동문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조영선(조정현 동문 가족), 김계숙, 김소, 김기택, Mrs. 박중수, 박중수, 지홍민, 강인구, 김현영, Mrs. 김현영, Mrs. 조정현, 조정현 동문



유성은 동문 부모님, Mrs. 최찬혁, Mrs. 윤은상, 윤은상, 이강원, 김해암, 최찬혁 동문



모교 총동창회 임원들



고병은, Mr 구명순, 구명순, Mrs. 서갑식, 서갑식, 오태요, 김명자 동문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이상길, 송용길, 한경수, 오세정 총장, 에드워드강, 신수정 회장, 정해민, 김원영, 박상원, 민준기, 조상근, 한태진, Mrs. 한태진, 강교숙 동문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고홍성, Mrs. 고홍성, 김병국, Mrs. 정정욱, 정정욱, 이장수, 강기동, 강기동 동문 가족



워싱턴 DC 지부,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이주희, 오령거, 박평일, 안선미, 정원자, 박문수, 정병희, 강윤선, 권기현 동문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김원영, 이장길, 이용락, Mrs. 이용락, Mrs. 김은중, 김은중, 오홍조 동문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조화연, 주기목, 전무식, Mrs. 전무식, Mrs. 지홍민, 지홍민, 김기택 동문



모교 총동창회 임원들



제14대 집행부 결산

수입 · 지출 요약 (as of May 15, 2019)			
	7/1/2017-6/30/2018	7/1/2018-6/30/2019	
이월금	\$47,347.11	\$145,277.54	
추가이월금	6,872.09		
Checks from previous term		(10,386.60)	
선수입		(30,375.00)	
선지출		7,209.08	
당기 수익	92,425.82	(6,186.88)	
<b>이월금과 수익금</b>	<b>\$146,645.02</b>	<b>\$105,538.14</b>	
Investment	(36,000.00)	(24,150.00)	* 종신이사회비 / 기금 CD로 입금
Released		5,839.55	* 모교발전기금 인출
<b>수익금</b>	<b>\$110,645.02</b>	<b>\$87,227.69</b>	
Uncleared checks	11,466.60	13,131.56	
차기 선수입	30,375.00	27,650.00	* 차기 회비 및 후원금
차기 선지출	(7,209.08)	(3,000.00)	* 차기년도 평의원회의 비용
<b>현금 잔액</b>	<b>\$145,277.54</b>	<b>\$125,009.25</b>	

수입 보고 (as of May 15, 2019)			
		7/1/2017-6/30/2018	7/1/2018-6/30/2019
<b>Donation</b>			
Membership Fee	일반회비	\$61,425.50	\$66,612.52
Donation	후원금 (<=\$500)	26,580.00	14,700.00
Donation	후원금 (>\$500)	85,650.00	6,000.00
Permanent Membership	종신이사회비	48,000.00	29,000.00
Annual Board Meeting Fee	평의원회비	7,390.00	8,125.00
Donation Total	모금	229,045.50	124,437.52
<b>Designated (Education)</b>			
Scholarship	장학금	8,350.00	3,875.00
Brain Network Seminar	브레인 네트워크 후원금	8,200.00	5,944.82
Fund for Alma Mater	모교발전기금	1,050.00	1,400.00
Designated (Education) Total	교육후원금	17,600.00	11,219.82
<b>Designated (Charity)</b>			
Sharing	나눔	3,025.00	850.00
Thousand by thousand	만만한 기부	4,700.00	-
Designated (Charity) Total	자선금	7,725.00	850.00
<b>Supporting Fund</b>			
Chapter - Local	자부담금	18,700.00	16,600.00
SNUAA Korea	서울대 동창회 지원금	6,000.00	6,000.00
Supporting Fund Total		24,700.00	22,600.00
<b>Advertisement</b>			
Business Ad (small)	디자인 광고 (소)	4,560.00	4,820.00
Business Ad (large)	디자인 광고 (대)	20,720.00	20,455.00
Website Ad		500.00	-
Advertisement Total	광고후원금	25,780.00	25,275.00
<b>Income Total</b>		<b>304,850.50</b>	<b>184,382.34</b>
Investment income	이자수익	1,245.98	7,779.98
<b>Gross Profit</b>	<b>총수익금</b>	<b>\$306,096.48</b>	<b>\$192,162.32</b>

지출 보고 (as of May 15, 2019)			
		7/1/2017-6/30/2018	7/1/2018-6/30/2019
<b>Newspaper</b>			
Printing	동창회보 인쇄	\$19,743.79	\$22,829.17
Delivery	동창회보 우송비	28,050.00	25,525.00
Editorial	편집부 비용	49,603.33	65,549.53
Newspaper Total		97,397.12	113,903.70
<b>Office</b>			
Administrative Expenses	행정 비용	13,261.12	11,200.00
Advertisement Collection Comm.	광고 수집 비용	4,832.00	4,242.00
Office Supplies	사무용품	2,013.57	640.04
Travel	여행 비용	5,631.95	5,431.42
Legal Fees	변호사 비용	937.76	475.00
Postage and Delivery	기타 우편료	663.96	1,150.03
Staff Meeting Expense	직원 미팅 비용	1,779.93	2,234.26
Flower	화환	-	557.01
Bank Charges	은행 수수료	486.37	499.64
Office Total	사무 비용	29,606.66	26,429.40
Support to Local Chapters	지부 보조금	1,300.00	1,900.00
Support to SNUAA Korea	한국동창회 지불금	11,000.00	-
<b>Annual Conference</b>			
Food	평의원회 음식	23,023.02	28,940.49
Transportation	평의원회 교통	2,496.98	1,191.20
Lecture	평의원회 강연료	3,227.00	-
Entertainment	평의원회 엔터테인먼트	2,043.06	4,244.02
Staff Help	평의원회 행사보조	2,096.00	4,071.65
Stationery	평의원회 사무용품	1,058.22	3,144.50
Annual Conference Total		33,944.28	41,591.86
<b>Brain Network Seminar</b>			
Food	음식	1,417.08	1,486.20
Venue	강연장 대여료	1,400.00	-
Lecture	강연료	2,500.00	1,500.00
Transportation	연사 여행 경비	1,607.18	-
Brochure	인쇄	1,388.00	98.00
Ad	광고	200.00	460.00
Administrative Expenses	행정비용	186.77	-
Staff Meeting Expense	회의비	177.59	500.06
		8,876.62	4,044.26
<b>Charitable Donation</b>			
	자선기부		
	이현석 동문 돕기	-	1,700.00
	한국학 연구	-	1,000.00
	기타	17,300.00	-
Charitable Donation Total		17,300.00	2,700.00
<b>Education</b>			
Scholarship	장학금 (기부함)	13,000.00	-
Fund for Alma Mater Sent to SNU	모교발전기금 (기부함)	-	-
Education Total		13,000.00	-
<b>Expense Total</b>	<b>총지출금</b>	<b>212,424.68</b>	<b>190,569.22</b>
	순수익금	\$92,425.82	\$(6,186.88)

제15대 회장단 제1차년도 예산

수입 (7/1/2019-6/30/2020)	
Membership Fee	\$80,000
Donations under \$500	25,000
Donation more than \$500	50,000
Pyong Eui Won Membership Fee	7,000
Scholarship	5,000
Alma Mater Development Fund (모교 발전기금)	4,000
Local Chapter Support	20,000
SNUAA in Korea	6,300
Advertisement	40,000
<b>Total Income</b>	<b>\$237,300</b>

지출 (7/1/2019-6/30/2020)	
<b>Newspaper (Monthly Journal)</b>	
1) Printing	\$20,000
2) Deliveries	30,000
3) Editorial Staff	60,000
<b>Sub-Total</b>	<b>\$110,000</b>
<b>Office Administration</b>	
1) Administrative Expense	\$23,000
2) Advertisement Commission	8,000
3) Office Supplies	2,000
4) Travel	12,500
5) Legal and Accounting Expenses	1,000
6) Website Maintenance	6,000
7) Computer Software	2,000
8) Postage	2,500
9) Staff Meeting	4,800
10) Bank Charges	900
<b>Sub-Total</b>	<b>\$62,700</b>
<b>Annual Conference (제28차 평의원회)</b>	
1) Food	\$25,000
2) Transportation	2,000
3) Lodging	2,700
4) Entertainment	1,400
5) Staff Help	2,000
6) Equipment	1,750
7) Stationery	1,200
8) Promotion	1,500
9) Educational	1,750
<b>Sub-total</b>	<b>39,300</b>
<b>Support to Local Chapters</b>	<b>5,000</b>
<b>Support to SNUAA in Korea</b>	<b>11,000</b>
<b>Donation to SNU alma Mater Development Fund</b>	<b>1,500</b>
<b>Total Expenses</b>	<b>\$229,500</b>
<b>Other Projects:</b>	
<b>Brain Network for 2020</b>	10,000
<b>Charity (2019. 7. 1. - 2020. 6. 30.)</b>	5,000
<b>Website Development</b>	5,000
<b>Rainy Day Fund</b>	7,300

노재성 (법대 58) 동문 홈콘서트 성황리에 개최  
남가주 법대 동창회 주최



Etienne Gara와 김유은 동문



최진석 법대 동창회장

【기사: 홍선례 문화국장】

지난 6월 8일 노재성 (법대 58) 동문 자택에서는 법과 대학 동창회 (회장: 최진석, 법대 64) 주최로 Home Concert가 열렸다. 김유은 동문은 6곡을 연주하였다. 첫 곡 Vittorio Monti의 "Czardas"(차르다시)는 이탈리아 작곡가 비토리오 몬티가 헝가리의 민속무곡 차르다시를 바탕으로 1904년에 작곡한 작품으로 원래 만돌린을 위한 곡으로 쓰여졌다.

4분의 2박자 무곡인 차르다시는 슬프고 장중한 선율로 느끼게 시작되어 전환점에서 빠른 곡조로 바뀌며 휘몰아치듯 열정적인 멜로디를 보여주다가 후반부에선 격정적으로 강렬하게 끝 맺는데, 김유은 동문은 세련된 테크닉으로 연주하여 감동을 주었다. 그 외에 Pablo de Sarasate의 "Zigeunerweisen"과 "Carmen Fantasy, Op. 25", Eva Dell'Acqua의 "Villanelle", Maurice Ravel의 "Violin Sonata No.2 in G Major, Dimitri Shostakovich의 "5 Pieces for Two Violins and Piano" 등 6곡을 연주하였다.

"지고이네르바이젠"은, 사라사테의 작품 중 대부분이 그의 조국 스페인의 색채를 풍부하게 담았 듯이, 집시들 사이에 전하는 무곡 등이 소재이다. Gypsy(집시)의 노래라는 뜻의 이 곡은 사라사테가 헝가리를 여행할 때, 그 지방 집시들의 민요 몇 개를 소재로 작곡하였다. 화려하고 예술적으로 세련된 문화인의 애상과 정열을 담은 곡이다. 제1부는 우울한 성격을 내용으로, 변화무쌍한 기교가 로맨틱하다. 제2부는 극히 서정적인 것으로 명량한 가요풍이다. 제3부는 극히 쾌활하고 열광적인 춤곡이다. 전체적으로 제1, 2부는 집시들의 방랑생활의 호탕함과 애수를, 제3부는 그들의 제멋대로 날뛰는 광경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김유은 동문이 Etienne Gara와 같이 연주한 Shostakovich의 "두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5개의 소품 연주, 또한 충만한 음식과 화음, 선명한 고음 비브라토 등 깔끔한 연주로 관객들을 매혹시켰다. (Etienne Gara와 김유은 동문) 그리고 김유은 동문은 바이올린 주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음악에 대한 이해를 더해 주었다. Flageolet(플레절레트) 또는 하모닉스는 현 위에 손가락을 가볍게 대고 활로 현을 쳐서 높은 휘파람 같은 음을 내는 주법이고, Col Legno(콜 레노)는 현을 활의 목부(木部)로 두드리는 주법이다. 현대 바이올린 연주의 특색 가운데 하나인 Vibrato(비브라토, 진동)는 현을 누른 손가락을 가볍게 아래 위로 움직여서 음이 강렬해지는 주법인데, 비브라토는 프리츠 크라이슬러, 야사 하이페츠와 같은 연주자의 영향을 받아 1930년대에 유행하였다. 가장 보편적 주법으로는 현을 활로 마찰하여 연주하는 Arco(아르코)가 있고, Pizzicato(피치카토)는 현을 손가락으로 뜯어 음을 내는 주법이라고 한다. 또한 피아노 Isaac Friedhoff 소프라노 신선미 등의 연주자들도 열정적으로 연주하여 신선한 감흥을 주었다.

최진석 회장은 다음과 같은 인사말로 노재성 동문과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오늘 Home Concert를 잘 마치게 되어 참석하신 동문 모두와 함께 자축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맛있는 점심을 제공해주신 노재성 동문 부부께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Concert를 열어 주신 출연자들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모두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헤어질 무렵에는 아쉬움이 남는 듯 했습니다. 올 해 연말 송년회에서 좋은 Concert를 준비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최진석 회장의 열의로 법대동문회가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다른 단과대학 동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무대가 아닌 개인 집에서 하는 홈콘서트 연주자와 관객이 가까워서 호흡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뉴포트비치가 바라 보이는 노재성 동문 맥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녹색 나무들의 정원 풍광이 함께 해 운치를 더해 주었다. 특히 그림 애호가인 노재성 동문의 집안 곳곳에 걸린 르노아르, 샤갈, 피카소 등의 원화가 눈길을 끌었다.





이서희 (법대 70)

### 노숙자 해결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요즈음 Los Angeles시에 거주하는 비지니스 소유자, 주민은 마음에 갈등을 느끼고 있다. 이곳 저곳 보이는 것은 노숙자들이 길에서 잔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쓰레기더미이니 어쩌다가 이 도시가 이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한숨을 쉬며 마음속에 커가는 분노를 억제하고 있다.

인간애를 가진 일반시민들은 노숙자에 대한 애절한 슬픔을 갖고 도움의 손길을 뻗으려고 한다. 이런 마음은 인간이면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하고 있는 자비심의 발현일 것이다. 그들이 재활의 길을 따라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지만 이러한 순수한 마음과 달리 해결의 길이 요원하다고 느끼면서 무력감을 느낀다면 이는 어디에 잘못이 있어 생긴 현상인지 그리고 누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시민의 권익과 노숙자의 권익, 시민이 호응하는 강력한 leadership, 정책 결정 및 시행계획에 따른 city, county, state, federal government와의 상호협조, 일반시민의 불만을 누그뜨릴 홍보방법을 Los Angeles시를 예로 하여 생각해 보자.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2018년 1월 기준 통계에 의하면 미국 전체에 대략 553,000명의 노숙자가 있으며 특히 대도시인 New York, Los Angeles, Seattle에 밀집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최근의 매스컴 보도에 따르면 대략 LA county에 6만명, LA city에 3만 6천명 정도의 노숙자가 있고, 작년에 비하여 각각 12%, 16%의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 숫자는 중소도시의 인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들이 LA 각처에 분산되어 있으니 부딪치는 것은 노숙자일 수밖에 없다.

이제 시민들이 생각하여야 할 부분은 노숙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일반시민이지만 시민자신의 권익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약한 자에게 최대한의 사랑을 베풀어야 할 자연적 일반시민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 가고 발전시키고 오늘날의 풍요를 이루어 왔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권익도 아울러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새로운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도 나올 것이며 동조하는 자가 많으면 정책추진에도 힘을 받게 된다.

Los Angeles시의 모 유력 정치인에 대하여 leadership부재를 이유로 주민소환(recall)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소

한의 성공여하를 떠나 시민들의 울분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시민은 눈에 보이는 실적을 원한다. 무엇 하나 제대로 추진된 것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은 늘어난 노숙자와 더불어 쓰레기더미 뿐이니 시민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다.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더 큰 분노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된다.

Leadership은 올바른 판단에 기초를 둘 때 힘을 발휘한다. 사탕발림 같은 근시안적인 눈가림으로는 노숙자문제와 방기된 쓰레기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요즈음 어느 Los Angeles city councilman이 issue화 시키고 있는 아파트 공실에 대한 아파트주인 책임제가 한 예이다. 주택이 부족하고 아파트 임대료가 높아 노숙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하에 이에 대한 책임을 아파트주인이 져야 하고, 걸은 벌금을 노숙자 구호기금으로 한다는 것으로 오죽 답답하면 사유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는 이런 발상까지 하는지 안타깝다.

또 다른 예는, 최근에 갑자기 downtown 거리에 있는 쓰레기 치우는 것을 인접한 업주 책임으로 미루고, 쓰레기가 길가에 쌓여 있으면 업주가 벌금을 내도록 시에서 티켓을 발부하고 있어 업주들의 원성이 크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쓰레기가 해결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다. 노숙자가 버리는 쓰레기는 악취와 더불어 양도 많아 이것을 치우려면 각자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통을 더 큰 것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고, 더 많아진 수거비용은 일반시민의 몫이 된다. 어떤 것이 올바른 판단인지 숙고하지 않으면 시민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leadership에 손상을 끼치면서 해결의 실마리는 저 멀리 달아나 버릴 것이다.

지그재그 행정갈아 보이는 시정을 어떻게 하여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정책수립에 최단기,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city, county, state, federal government와 상호협조 체제를 도입, 유지하여 해결함이 옳다.

최단기로는 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일정한 공터를 제공하여 그들의 개인용품 및 텐트를 가지고 와서 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시에서는 최소한의 간이시설 즉 화장실과 샤워실을 제공하는 것, 단기적으로는 임시쉼터 운영, 중기적으로는 무상 또는 저렴한 주택 제공, 그리고 장기적인 방법으로는 Village of Survivors 군락을 만들어 가는 것 등을 고려해 봄직하다. 이러한 일들은 시정부 단독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만큼 노숙자와 쓰레기 문제는 커져있다.



최진영 (문리 55)

### 김은국 작가를 다시 회고하며

1964년이었습니다. 그의 순교자(The Martyred)가 미국 문단과 전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등장한 해였습니다. 이 작품은 뉴욕타임즈에 김 작가의 사진과 함께 대대적인 논쟁이 실렸고 곧 이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후 많은 학자들과 문학평론가들이 이 소설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계속 해 왔습니다.

1964년은 제가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North Carolina Chapel Hill 대학에서 영문학 석사과정을 막 끝마치고 논문이 통과되었던 해였습니다. 그때 순교자의 등장은 저에게는 한편의 경이이며 감격의 대상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그리고 미국대학원에서 석사, 후에 박사과정을 거치면서 항상 저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던 생각은 한국문학 작품 중에도 세계 어느 작가와도 비견될 만한 작가와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언어의 한계 때문에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작가는 정연하고 유려한 영문으로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인간의 생존문제와 깊은 철학적 신학적 문제들을 전쟁의 참화 중에 겪었던 한국인들의 고뇌를 부각시켜 예리하게 분석하고 표현하였습니다.

많은 비평가들은 김 작가를 알베르 까뮈와 비교하였습니다. 김 작가는 순교자의 헌정문에서 "알베르 까뮈에게 그의 이상한 형태의 사랑에 대한 통찰이 필자로 하여금 한국전쟁의 참호와 벵커에서의 허무주의를 극복하게 해주었기에 이 책을 바친다"고 쓴 바 있습니다. 또 이어 "전쟁 속에서의 인간의 한계 조건과 종교적 갈등을 다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교자의 이 대위는 "당신의 신, 그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신 목사가 "의롭지 않은 신에게 기도하고 싶지 않다고 소리치며 죽어가는 장면을 되짚어 봅니다.

실존주의 작가들과 김 작가의 공통점이라면 무신론적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순교자를 읽을 때마다 영국의 철학자 William Irwin의 글 "God is a Question, Not an Answer"라는 글을 늘 생각합니다. 1968년에 발표한 The Innocent (심판자)와 1970년의 Lost Names (잃어버린 이름들, 또는 빼앗긴 이름들)은 순교자 만큼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니다.

심판자는 군인들이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이 소령과 민 대령간에 반목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폭력에 의한 피 흘리기를 반대하는 도덕적인 이 소령과 목적을 위해 쿠데타를 강행해야 한다는 민 대령과의 싸움입니다. 두 군인들이 다 한국전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1970년에 발표한 Lost Names는 일본 경찰에 의해 여러 고난을 겪으며 초기에 일본군의 승리를 들으며 인내

하는 가족들의 이야기부터 일본이 패망한 동네의 치안을 맡고 일본으로 퇴진하는 일본인들에 대한 폭행을 자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Today I lost my name. Today, we all lost our names. February 11, 1940"라는 비장한 장면입니다. 당시 일본은 모든 한국사람들에게 일본 이름을 가지라고 하는 정책을 강요하였고 심지어 한국 여성들은 집 밖에서는 한복을 못 입게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조상의 묘 앞에서 통곡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1940년대에 우리 형제들의 학교입학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일본 이름을 지어주신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일본이름을 '다카야마 기레이코'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은국 작가는 1981~83년 동안 풀브라이트 교환교수로 서울대학교 문리대 영문과에서 강의를 하였고 여러 곳에서 강연도 하였습니다. 한국의 문인들과 문학교수들과도 활발한 교류를 하였습니다. 김 작가가 시간 여유가 있을 때면 커피 한잔을 놓고 미국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한국계 작가들과 한국 문학의 해외 진출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자연히 번역 문제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한국 문학 번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1985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한국어로 펴내면서 김 작가가 피력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에서 영어로 쓴 순교자란 소설을 내보냈을 때 보다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 말로 쓴 글들을 이처럼 세상에 내놓는다는 것이 나에게서는 더 기쁜 것이고 영광이고 오랫동안 나홀로 지내고 살아왔던 일종의 외로움이 얼마만큼은 슬며시 사라지는 것같은 기분이다. ... 비록 무거운 짐을 진 이 땅이라도 두려움없이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노라고 새삼스럽게 다짐하는바이다."

그후 1989년에 "소련과 중국, 그리고 잃어버린 동족들"이란 포토에세이에는 옛 만주 용정에서의 기억이 녹아 있습니다. 김 작가의 전 작품을 통해서 독자에게 가슴깊이 스며오는 감명은 그의 끊임없는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1. 김옥동 교수자 김은국, 그의 삶과 문학에는 김작가의 작품연보 수상경력, 그의 작품에 대한 세계각국의 연구 논문 등 자세한 사실들이 들어 있습니다.
2. 김 작가의 세 권의 영문소설과 두 권의 한글 저서 모두에 씨인을 해 주신 것에 대해는 감사드리며 제가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소장품입니다.
3. 강영훈 이후, 김은국, 20세기 말부터 나온 이창래, 수전철을 이어 21세기에 수많은 한국계 미국 작가(주로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 노재성(법대 58) 박사 인터뷰

### 노재성 (법대 58) 박사의 살아온 이야기



노재성 박사 부부

번 시작해 보려는 자세... 둘이 다 미술을 좋아하고 고전음악을 좋아하고... 와이프는 골프 (golf) 를 좋아하고 저는 요트(Sailing Boat) 를 좋아하고 ... 그렇게 지내 오다가 20년 넘어 드디어 요트를 팔고 저도 골프채를 잡았습니다.



최진석 법대 동창회장

이제 우리 둘 다 은퇴했고 고등학교 그리고 법대 동기들과 그저 삶을 즐길 뿐입니다. 골프를 열심히 치고 좋은 고전음악제가 열린다면 Vienna, Lucerne, New York, Rome, Verona 어디 건 찾아 갑니다. 최근에는 Baden-Baden을 다녀왔습니다. Berlin Philharmoniker 교향악단이 Easter Music Festival을 가졌는데 새로운 지휘자 Kirill Petrenko를 모셨습니다. Verdi의 Requiem을 Ricardo Muti가 지휘했는데 주연가수 Elina Garanča와 같이 한국의 소프라노 여지원씨가 출연하여 아주 좋았습니다. 그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이번의 법대 음악회를 가지게 되어 아주 의미가 많았습니다.

**미술작품 모음에 특별히 취미를 갖게 된 이유**  
어머님 덕분에 고전음악이 늘 집안에서 들려왔고 음악은 제게는 지극히 자연스런 일이었습니다. 미술은 고등학교 시절의 미술 선생님 덕분에이었습니다. 늘 Renoir, Pissarro, Degas의 그림들을 좋아했습니다. 누가 불란서 인상파의 대작들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또 Matisse, Vlaminck, Louis Valtat 그리고 Henri Manguin 등의 초기 야수파(French Fauvist)를 좋아합니다. 뉴욕 Sotheby's에 좋은 친구가 있어 그들의 조언으로 좋은 그림 몇 점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 젊은 날의 꿈들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인생의 많은 일을 겪으면서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은**

저는 한국에서 오는 젊은이들에게 "미국의 주류사회로 들어가라"고 말해 줍니다. 만일 사회적으로나 직업상으로 다른 한국 사람 하고만 만나 어울린다면 "American Dream"은 이루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이태리 그리고 아이리쉬 이민자들이 걸어온 길에서 배워야 합니다. 자기네 인종 가운데서만 살아간다면 영원히 "이등국민" 밖에 되지 못합니다. 미국 주류 사회에 융합되어야만 더 성공하고 더 발전합니다. 그렇다고 "한국 문화, 한국적 가치"를 저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미국 주류 사회속에서 일하고 생활하면서 동시에 오랜 한인 옛 친구들과 어울리고 한국 문화도 즐길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은 두 세상의 좋은 것을 같이 동시에 즐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4. My wife Dee (Park Dosim) left Korea right after high school. Having gone to the SNU, I had more time to develop an appreciation of Korean culture. When we met, we found many things in common - most importantly tradition-respecting views, yet open to try any new things, open to experiment any new ideas. We found we are both lovers of art and classical music. She was a golfer but I was a sailor. Over twenty years, she was able to convince me to trade my boat for a club.

**Chase Roh's Original English Response**  
1. I did my graduate study at University of Illinois, Champaign-Urbana, receiving Ph.D. in Economics in the early 70's. Then I taught economics and business at Illinois State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Illinois along with doing some research projects. The research projects gave me an opportunity to leave the University to start a consulting business with the US government. Gradually we converted the knowledge-based business to product-based business for commercial applications.  
2. Originally I promised my parents and my then-employer, Korean Development Bank, that I would return after a Master's program, but scholarships and job-offerings in America kept me here. Unlike today's competitive environment, there were plenty scholarships and jobs

5. Classical music was always playing in our house thanks to my mother, so music was a natural. I believe my appreciation for the art was largely developed at my high school days. Our art teacher was a great influence. I always liked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news@snuaa.org www.snuaa.org

158-14 Northern Blvd., 2nd Fl. UL-2, Flushing, NY 11358 | T. 718-463-3131

참여, 협력, 영광

### 홈커밍데이 40주년 미주 동문 참여 일정

- 1) **10월 15일 (화):** 서울대 개고기념식 및 선 후배 질의 문답시간
- 2) **10월 16~19일 (수/목/금/토):** 서해 및 남해 3박 4일 여행 (미주 동문 및 본국 동문 참여)
- 3) **10월 20일 (일):** 서울대 홈커밍데이 등반대회 및 서울대 총장실 방문
- 4) **10월 21일 (월):** 서울대 총동창회 장학발당 방문 및 서울대 교내 투어

◆ **서울대학교 호암 교수회관**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Ho-Am Art Hall)

· 주소: (151-05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동 239-1 서울대학교 호암 교수 회관

· T: 02-880-0300 | F: 02-885-0255 | mkim0131@msn.com | http://www.hoam.ac.kr

· 예약 신청 바로가기: http://www.hoam.ac.kr/rooms/reservation.php

· 연락처: 서울대 미주동창회 조직국장, 백옥자 818-395-1967 | okjapaik@gmail.com

#### 미주동창회 회장 신응남

### 서울대 홈커밍데이 여행 일정표 (서해 3박 4일, 2019년 10월 16~19일)

\$529.00 + 항공료, 연락처: 백옥자 (Jace Lee) 818-395-1967

DATE	CITY	TRAFFIC	ITINERARY	MEALS
제1일 10/16 (수)	인천 서울	항공 전용차량	(0600am) 제2여객터미널 인천국제공항 1층입국장 B출구 6번 출입문 앞(안내데스크) "US아주투어 피켓" (0630am) 제1여객터미널 인천국제공항1층입국장 D와 E사이 10번 출구 앞(안내데스크) "US아주투어 피켓" (0830am) 강남(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정문 앞) 출발 "US아주투어 피켓" 청주로 이동 대통령 전용 별장 청남대 중식 후 순창으로 이동 수려한 산세와 울창한 숲 강간선 국립공원 담양으로 이동 가장 키가 큰 식물이 담양이 있다고요? 담양 죽녹원 광주로 이동 석식 후 호텔 투숙 호텔: 광주 올리데이인 또는 동급 (TEL : 062-610-7000) (7월말과 8월은 목포 현대 또는 동급 호텔에서 투숙합니다.)	B: X L: 우렁쌈밥 D: 대동밥과 떡갈비
제2일 10/17 (목)	광주 순천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순천으로 이동 낙안읍성 조선시대의 읍성 대한민국의 사적 제302호 중식 후 2015년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 순천만 국가정원 인간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으로 감동을 선사하며 클래스가 다른 꽃들의 향연 보성으로 이동 보성녹차밭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에서 회천면 사이에 걸쳐 있는 차 재배단지 중식 후 여수로 이동 오동도 (여수밤바다 야경) 190여종의 희귀수목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동백섬으로 유명하며 한려 해상 국립공원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순신대교가 보이는 객실에서 투숙 및 휴식 호텔: 광양 락희 호텔 또는 동급(TEL: 061-913-5000)	B: 호텔뷔페 L: 별교교막 D: 갈치조림
보성				
여수				
광양				

제3일 10/18 (금)	광양 통영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동양의 나폴리 통영으로 이동 ▶ 선택관광: 통영 케이볼카 (US\$ 2000 p/p)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긴 1,975m의 케이볼카로 정상에 오르면 한려수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100경중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으며 세계 4대 해전에 해당하는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다도해입니다 한국 조선산업의 메카 거제도도 이동 및 중식 ▶ 선택관광: 장사도 (US\$ 4000 p/p) 푸른보석 위 남도의 작은 섬 장사도 동쪽에 몰려다 한려수도의 절경과 동백의 조화로 절정을 이루는 2011년 12월 문화 해상 공원의 탄생 기상으로 인해 장사도 불가지 한산도로 대체됩니다. 아주만의 특전 거제 바다를 바라보며 호텔식으로 석식 후 투숙 바다 위로 펼쳐진 산책길을 걸으며 거제의 밤바다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호텔: 거제 대명리조트 또는 동급 (TEL :1588-4888) 100% DELUXE FULL OCEAN VIEW 보강 거제 대명리조트 호텔	B: X L: 우렁쌈밥 D: 대동밥과 떡갈비
제4일 10/19 (토)	거제 김해 (부산)	거제대교	호텔 조식 후 거제 출발 거제대교 전망대에서 거제대교 조망 부산과 거제를 잇는 길이 8.2km의 다리로, 해상교 사장교와 해저의 침매터널(3.7km)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해공항으로 이동 후 이륙 김해공항 도착 후 자유해산 (부산역까지는 개별 이동) (김해공항에서 부산역까지는 개별 이동이며 공항 1층에서 부산역 방향 공항 리무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B: 호텔뷔페 L: X

paintings of Renoir, Pissarro and Degas. Then who would not love French Impressionism? We also love early French Fauvists like Matisse, Vlaminck, Louis Valtat and Henri Manquin, We had a good friend at NY Sotheby's, who guided us through our acquisition of some of their arts. Thus some of my boyhood dreams got fulfilled.

6. I tell newly arriving and young Koreans, go mainstream. You cannot chase American dreams if your dominant social and professional engagement is only with other Koreans. We can learn from the journey Italian and Irish immigrants have taken. They lived second class lives as long as they stayed in the comfortable ethnic community. It was not until after they integrated into the

mainstream America that they started to flourish. It does not mean abandoning Korean culture. You can work and play in the mainstream American society, while still enjoying life-long friendship with other Koreans and enjoying our Korean culture. We can have the best of both worlds.

7. I always enjoyed my old classmates

from high school and college. They are life-time treasures and irreplaceable companions in life's journey. While I was still working, time constrains limited my interaction mainly to my classmates, with little time left for Korean community at large. Since retirement I have the luxury to be more engaged with Alumni groups and get acquainted with many ("sun-bae" and 'Hu-bae").



김해암 (의대 52)

### 미국선거와 민주주의 갈등

나는 오십여년 미국의 대선에는 거의 빠짐 없이 선거에 참여해 왔다. 뉴욕에 처음 도착하여 줄곧 한 고장에 살다보니 자연히 지역 사회와 뉴욕주 의회 선거 등을 수십 번 겪어 보았다. 그러다 보니 선거는 남의 일이 아니요, 바로 우리를 한 고장에 정착하는데 돕고없이 중요한 행사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런데 2016년에 있었던 선거는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생긴 후로 가장 괄목할 만한 선거전으로 탈바꿈하여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매년 4년마다 있는데 선거일 날은 공휴일로 학교도 쉬고 공공직장도 쉬게 되었다. 2016년에 대통령선거는 11월 8일, 화요일에 있었고 그 선거일 전후하여 많은 행사와 선전이 있지만 대개는 법률로 정해져 있다. 특히 2016년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예선에서 많은 풍파를 일으켰기 때문에 선거 활동에 많은 혼란이 있었다. 미국 공화당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을 잡고 여러면으로 여자로서 대통령으로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 놓으려고 노력했다. 그런 것을 소련의 정치가들과 합작하여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치 자금이 러시아에서 흘러들어 왔다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 또 한가지 특기 할만한 사실은 2016년에 대통령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은 예년에 비하여 일장백중하는 경쟁을 벌였기 때문에 소수표의 차이로 당락선이 결정되리라 예상하였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 행정에서 회교도의 습격으로 미국 대사가 살해된 것을 듣고 나와 그것이 국무장관의 책임이었다고 논란을 벌여 왔다. 그와 동시에 힐러리는 자기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국가 문제에 국가적 기밀을 폭로했다고 공화당에서는 질책을 했던 것이다. 그런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외교 활동을 벌였다는 것이 선거 직전까지 문제화되었다. 한 일화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다. 화요일 10월 30일 나는 업퍼 이스트 사이드에서 링컨 센터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참 무르익어 가는 선거 1주일 전의 이야기이다. 나는 M72, 72가 옥 예비부에서 링컨센터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마침 자리가 있어 두자리 좌석에 앉았더니 바로 앞좌석에 노년의 백인 남녀가 앉아 있었다.

그 부부의 얘기를 들은 즉 선거에 대한 뉴욕 타임즈의 평을 말하고 있었다. 나는 호기심에 말하기를 "결국 당신들은 현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힐러리가 앞선 것으로 뉴욕타임즈는 보고 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슬며시 비웃는 모습으로 "뉴욕타임즈는 힐러리 편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우리도 사실은 몇일 전까지만해도 힐러리 편이었는데 오늘은 우리 마음이 달라졌습시다" 내가 말하기를 "어떻게 된거죠?" 그랬더니 그 70대의 남자가 말하기를 "트럼프는 여자짓 망동을 벌였지만 사실은 돈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더 안전한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이어 받아 부인도 백발 노인인데 말하기를 "트럼프는 돈이 많으니까 욕심을 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남자가 이어 받으면서 "사실 미국의 정치는 돈 많은 사람들이 해온 것 아닙니까? 우리는 유태인으로써 민주당으로 여지껏 살아왔지만 아무래도 여자인 힐러리보다는 트럼프가 미국의 경제를 살려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는 한편 놀라기도하고 또 유태인이 대개 민주당에 철저한데 어떻게 변심을 했는지

의심스럽기만 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물기를 "당신네들은 뉴욕타임즈가 정확하게 사건을 보도 한다고 봅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대개는 그렇죠. 하지만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너무도 힐러리 편에 드는 것만 같았어요" 내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당신들이 민주당이라면서 변심을 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먼저 여자가 "나는 사실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으로 여자가 나오는 것을 환영했지만 차차 선거전이 벌어 진 것을 보니까 여자보다는 남자가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이어 말하기를 "나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내가 반응하기를 "트럼프는 정치 경험이 전혀없고 주지사나 정치 정당에서 일한적이 없고 사업을 하다 보니 정치를 사업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갈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힐러리는 국무장관으로써 4년 이상 경험이 있고 그 전에도 자기 남편 클린턴 대통령 때 펠트 레이디로서 정치 참여를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 풍부한 경험을 살린다면 트럼프보다 훨씬 더 좋은 대통령이 될꺼라 생각하는데요"

그 노부부는 말하기를 "잘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 왔죠. 그런데 지난 한주일은

동안에 일어난 것을 보면 힐러리의 그런 수완을 의심하게 되는군요. 첫째 실수가 자기 컴퓨터를 국사 관리에 썼다던지 뺑자지 미국 대사 살해 사건을 공정하게 다루지 않은 것 같다. 던지 어떤 사실을 왜곡한 듯한 것도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힐러리 보다는 트럼프를 찍으려고 합니다. 또 모르지만 아직도 한주일이 남았으니 그 안에 무슨 변동이 있을지도 모르죠"

"당신은 누구를 지지합니까?"라고 나에게 물었다. "나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써 미국에 처음왔을 때는 공화당이었는데 미국에 이민 후로 민주당으로 옮기고 계속 민주당을 지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힐러리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분들은 또 말을 잇기를 "우리가 미국에 사는 데 당신이 그렇고 동양인이나 유태인이나 약소 민족으로써 대통령 선거에 공정을 기하고 좋은 대통령을 선출해야 우리에게 혜택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에게도 트럼프가 더 이익이 될게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대답하기를 "Let's wait and see"라고 대답했다.

이런 대화가 한 20분동안 링컨센터로 가는



버스안에서 생겼다. 보통은 미국사람들이 버스에서 이런 대화를 하는 경우가 드문데 그때는 선거 직전이고 열띤 토론이 오가는 때라 자연스럽게 보였다. 이런 얘기를 듣는 주변사람들도 대개 귀를 기울이고 듣지만 하고 참여하지는 않았다. 나는 속으로 왜 이런 80에 가까운 유태인 노인들이 변심을 했을까 하는데 큰 관심을 갖았었다.

독자들이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그 후에 많은 논란을 겪으며 트럼프의 당돌한 정치적인 조치나 정책을 우리는 2년만 동안 보아 왔다. 동시에 선거전이 러시아의 강력한 개입으로 선거 결과가 왜곡되었다는 것이 논란되어 왔다. 현재 물러 3개의 특수 조사반이 러시아 선거관련을 끝내고 트럼프의 측근이 변신하여 특수 조사반의 협조하는 등 관련한 입장을 트럼프에게 돌리고 있었는데 이런 사실은 민주당의 국가에서 끝까지 밝혀 내야할 일이라고 지식인들은 생각하고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선거전에서 벌리던 사실의 왜곡이나 당돌한 조치 등을 좀 더 완화하여 민심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지금까지도 미국에 백인보수세력을 믿고 있고 러시아와 협조해 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 댓가로 미국은 러시

아에 대한 유럽 연방과 미국이 경제적 통제를 풀어 주려는 의도가 의심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미국의 정치를 봐야 하며 미국의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 하는데 신중한 고려를 해야할 것으로 나는 믿는다. 다시 말하면 동양인으로써 또 한국 남한 사람으로써 미국에 대한 정치와 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우리가 적국 미국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미국에 사는 한국인은 시민이 된 사람이나 불법체류자까지도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적극성은 없고 대개 추종하는 정도인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안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다수 있는데 그런 한국인들은 한국전쟁에서 미국의 도움으로 남성이 상존하고 있고 미국의 철수될 만한 반 공산주의 사상을 공화당이 이끌어 왔는데 기인한다. 그것은 이해할 만 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적극적인 정당 활동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 나는 10여년 전에 뉴욕 플러싱 지역에서 나온 선거에 임한 박모라는 한국계 미국인이 시 의원 대에서 뉴욕주 민주당 의원으로 출마했는데 적극 참여하고 동조한 경험이 있다. 그 민주당 후보는 선거의 상례법인 후원자의 모금이라던지 또 선전을 그럴듯하게 올렸다. 당시 한국 기업들이 지원을 함으로써 그 분이 수 차 출마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첫번째는 백인 민주당에게 패배하고 둘째는 중국 사람 여자로 말도 행동도 좀 더 능란한 사람에게 패배했다. 셋째번에도 그 중국 여인이 재선되는 바람에 패배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느낀 것은 한국인들의 정치활동이 좀 더 조직적이고 기본적인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고 느꼈다. 선거라고 호구방문을 한다던지 교회나 당 모임에 가서 연설하는 것에 끝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정책적인 이론을 전개하지 못하는데 때문이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좀 더 미국의 사회를 이해하고 미국의 유권자들의 정신적인 또 종교적인 배경과 경제적인 측면을 잘 파악하고 준비를 충분히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인이 많이 사는 플러싱에 론 김이 주위원으로 3선까지 하고 있고 롱아일랜드에서 한국인 정치가가 나오고, LA에서도 유능한 사람들이 나오기를 고대한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부조리와 선거의 문제점을 살펴 볼 때 느끼는 것은 미국의 2당 정치체제는 좋은 점도 많으나 치열한 경쟁 때문에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하는 방법에 주심하다 보니 여러가지 부조리와 무리가 나타나 는 것을 우리는 1970년 대의 닉슨 대통령 때부터 지켜 보고 있다.

2016년의 선거는 양당이 팽팽하게 맞서게 되니 입후보자들의 배우에서 조종하는 암투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12년 전의 조지 W. 부시 부시의 억지하다 싶은 승자로 대통령으로 선출되다 공화당에서는 어떤 수단을 쓰든 투표자들의 관심을 끌어야겠다는 욕심이 노골화 된 것을 2016년에 보게된 것이다. 이런 처참한 경험을 해 온 공화당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지상 명령처럼 와 닿은 것이 언론을 통하여 민심을 사로잡자고 있고 러시아와 협조해 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 댓가로 미국은 러시



문제는 미국이라는 영어로 국가를 지켜온 백인들의 인구가 줄다보니 이민 정책의 자유화로 다민족,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언제나 정치적 우선권과 특전을 받아오던 백인들이 다인종의 투표를 얻으려고 상경이를 부리기 시작 한 것이 근 50년을 바라다 보니 외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선거에 이겨야겠다는 치사한 경지에 다다른 것이다.

존 스노우든의 디지털 비밀 탈취와 그의 러시아 망명을 독자들은 기억하시리라. 스노우든이 러시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 역시 어떻게 미국의 시스템을 훔고 들어가는가에 있었을 것이다. 러시아 군부 젊은이들이 위키피디아를 익히고 미국 정당의 비밀을 낚는 대통령 때처럼 위키리크스를 해 낸 것이다. 그런 것을 트럼프 후보자 팀이 포착하여 이용한 것이 분명합니다. 몰러 조사단이 공화당 선거관계자들을 주시하고 탐색하여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 근본을 찾아보고 또 실제로 이런 언론의 조절이 어떻게 일반 시민에게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보자.

한국계 미국인들은 소수민족으로 미국을 영어로(영어를 주 언어로 쓰는 구라파 강대국, 독일과 불란사)의 신대륙으로만 알고 있었으나 그것은 옛말이고 과거 50년 이상을 영국을 위주로 한 구라파의 백인 소수민족 국가와 세계 약소국가들의 미국이민으로 말미암아 백인사회가 점차 줄어들고 세계 소수 민족들의 공헌이 미국을 부강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한다.

우리는 미국의 놀라운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은 몰라도 후에 알아 차리게 될 것이다.

2016년에 있던 대통령 선거의 부조리를 2년 이상 조사하다 종말을 짓고, 대통령의 탄핵 절차 보다는 2020년의 있을 대신으로 써 가능하자는 여론과 의회 절차의 번잡 때문에 선거전에 열중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민주주의 체제의 부조리와 같음을 볼 수 있다.

그 분쟁 중에도 한 대통령이 여지껏 보지 못했던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으로 구사하는 모습도 우리 세대만이 보고 겪는 놀라운 사실에 한가득 전설로 남을지도 모른다. 대통령이 알게 모르게 자기의 지지자들에게 폭동이나 반란 내지는 혁명을 일으켜도 무관한 듯한 인상을 주는 행동에도 국민은 끔찍도 않는 날모습은 정말 동양인으로서의 알아 차리기 힘든 미국인의 저력을 보는 것 같다.

NYT 1/26/19 전면에 정부가 35일간 문을 닫은 것이 해제 되고 공무원의 복귀가 선언 되었는데 우리 딸도 직장을 홀로 지키다가 직원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몰러 특별조사팀은 대통령의 6 보좌관들을 거짓 증언과 증인 도피, 허위진술 및 은폐죄 또 재정 부패로 소송하고 로저 스톤씨의 새벽 플로리다 자택 수사와 체포로 수사를 받았고 로보 몰러의 특수 조사가 2년만에 기세를 보였으나 증거 미비로 소송 내지는 탄핵을 하려던 민주당이 좌절에 이르고 말았다.

닉슨 대통령이 민주당 사무실을 침입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원시적 방법에 걸려 대통령 퇴임을 당했던 비극과 40대 대통령 레인 지로 시작된 백인종의 나라로 정착한 건국 이후 흑인을 비롯해 다민족의 노력으로 키워온 미국 문화를 계승해 가는데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또 한편, 역시 2차 대전의 승자로 등장한 소련이 경제적 침체를 벗어 날 수 없어 공산주의 이념을 내세워 세계를 정복하려던 야망도 무너지고, 백인종의 다국가 유럽연합도 중국의 모택동의 반발로 시작한 공산주의가 수정 자본주의로 경제발전을 거듭해서 초강대국인 미국과 경쟁을 벌이는 것을 보면 40여 년을 끌어다가 1990년에 붕괴된 러시아와의 큰 차이는 중국이 민주주의의 약점을 교묘하게 사회주의로써 보완한데 있다고 볼 수 있고 사회주의 이상을 목표로 두고 계속 지향해 가고 있다.

문제는 2차 대전과 한국 동란이 끝나고 찾아온 미국의 부강한 경제를 틈타서 반문화 혁명이 민간에 일어나 히피 문화의 꽃을 피우면서 유로파의 소수 민족 출신의 미국 시민들 즉 애란, 이탈리아, 히랍, 스페인 그리고 유대인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져 결국에는 백인 소수민족 애란 출신의 케네디 대통령이 선출 됨으로써 영국계통으로 동진하던 미국의 정치 풍토를 뒤집어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케네디가 부통령을 영어로 LBJ로 정한 것의 오산으로 암살 당하는 비극으로 시작하여 영어로 그룹과 유로파 백인 소수 민족간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거대한 발전을 보아 왔고 M.L.King 목사의 흑인 인권의 항쟁에서부터 이민의 자유화 등 케네디 대통령의 선거 약속의 이행으로 미국의 풍토는 달라지기 시작하고 다민족 다국가 이민이 급속히 진행되어 왔다. 현대화를 위하여 중국의 공산당 정권은 국정이 안정되자 젊은이들을 겨우 무제한 원하면 우수한 학생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다.

특히 1980-1990년대에는 미국의 대학의 풍토를 보면 알 수있다. 나의 아들이 입자 물리학 박사 학위 과정에서 반수이상이 중국인이었고 룸메이트는 중국 여자로 4-5세 년상이었는데 콜롬비아 대학 소속 기숙사에서 같이 기거하였다. 모두 공부에 열중하고 생활은 번갈아 요리, 청소 등 담당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가졌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조치가 잘 어울려 갔는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런 중국이 오늘날 그 열성있는 젊은이들이 G5 무선 전신의 보급을 미국을 앞질러 하려고 힘쓰는 것을 보면 얼마나 동양인들이 미국의 발전을 도울 뿐 아니라 독자적으로 미국의 발전을 추적하며 앞질러 가려는 노력이 치열하다.

우리는 미국의 2016년 대통령 선거를 겪으면서 미국이 새로운 민주주의 발전의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다 선거법 등 민주주의의 개량이 힘쓰고 있다. 동양계 미국인들이 지금이야말로 미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라고 나는 내다 보고 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윤낙승 형을 추모하며

김은한 (의대 60)

오늘 저녁,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 윤낙승 형과 이별하는 시간입니다. 슬프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고인을 추모하는 여러 지인이 석별의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자치지 않은 삶과 에너지로 우리 모두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존경하는 우리 친구!

누구든 꼭 가야 하는 생로병사의 순리를 감히 거역할 수 없어 그를 떠나보냅니다. Dr. 윤과 우리 대학 동창들은 1960년대에 대학에 입학해서 꼭 60년 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서울 태생에서는 둘이서 36개나 되는 배를 배터지게 먹고 만을 부리던 때가 있었고 제주도에 갔다가 돌아올 때는 꼬박 이틀을 굶으면서도, 유달산을 올라갔다 온 것이 바로 몇그제 같은데 이제는 지나간 옛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Dr. 윤이 결혼할 때는 제가 함을 지고 갔었습니다. Dr. 윤 부인과 우리 집 사람, 또 조의열 부인, 이효표 부인들은 모두 종교등학교, 대학교 동창으로 생소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미국에 와서 보스턴에서 같은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인연이었습니다. 제 친구 Dr. 윤은 항상 겸손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Dr. 윤은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 꿈을 이루기 위한 끝없는 도전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킬리만자로를 여러 번 등반했고 수마트라에서 아르헨티나, 인도 등의 오지를 섭렵하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오지 탐험은 한 번도 기본 적이 없는 전인미답의 오지를 70대 노인이 전문탐험가들과 어울



고 윤낙승 (의대 60)

러 베트남에서 이룩한 대단한 장거였습니다. 오지 탐험을 왜 하느냐는 저의 걸코 달갑지 않은 질문은 그는 가짜야 오지 탐험의 진수를 알 수 있다고 대답하곤 하였습니다.

윤낙승의 한자 이름은 얼록수 낙(樂)에 오를(昇)으로 씁니다. 이름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 소원이라서 부모님께서 그렇게 작명하신 듯합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올라가는데 신명을 바친 듯합니다. 한번은 보스턴 대학병원에서 Dr. Thomas Hombein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1963년에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마취과 의사였습니다. 그 후에 Dr. 윤이 말하기를 자신의 꿈은 Dr. Hombein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의 꿈이 천당에서라도 꼭 이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Dr. 윤에게는 평소 Trekking을 함께 즐기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몇 년 전에 세상을 뒀는데 그는 감용이라는 저의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천국에서 둘이 함께 만나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아쉽고 서글프지만 이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꼭 가야 하는 인생길, 우리보다 조금 일찍 갔노라고 믿어드립니다. 비록 말없이 우리 곁을 홀연히 떠나갔어도 이 자리를 함께 한 우리 친구들은 그를 영원히 기억하고 그리워할 것입니다.

평생 고락을 함께하며 Dr. 윤에게 힘이 되어 주신 부인과 훌륭하게 성장한 Patrick과 Kathy 님들, 또 모든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말씀을 올립니다.

윤낙승! 사랑하고 존경했던 우리 친구~ 부디 안녕히 가시게.

위에 말한 물러 검찰의 조사로 러시아의 참여가 어떻게 미국인 사회에 영향을 주고 선거에 도대체 어떻게 영향을 주었다고 하느냐 하는데에 대한 나의 관찰을 적어 보았다.

내가 뉴욕 맨하탄 중심가 버스 안에서 일어난 광경을 주목해야 할 것은 Hillary Clinton 이 2016년 선거 패배 성명을 내면서 트럼프 승자에게 여러 자식들이 선거 활동을 도운 것이 부러웠다고 한 말이 나의 귀에는 이상스럽게 들렸었는데 실상 선거를 어

지럽힌 장본인들이 아닌가? 선거법이 어떻게 변할른지는 모르지만, 공정한 선거를 시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미국 시민은 절실히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20여 명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의 논쟁을 지켜보면서 민주주의를 발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과정이 인류 역사에 기록 될 것이고 디지털 혁명으로 공정선거 방법이 나올지 또는 종래의 선거 방법을 정확하게 지켜 나가야 할지, 온 국민이 지켜 보아야 할 과제인 것이다.

**2019년 7월 1일 이후, 동창회비, 업소특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보내실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USA** (payable to SNUAA-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Tel: 718-463-3131 / Fax: 718-463-6789 / news@snuua.org**

**제15대 미주동창회**  
**1차 회기 회비, 후원금은**  
**8월 호부터 업데이트합니다.**

**업소특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1차 회기: 2019. 7. 1 ~ 2020.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b>전희장단 이월금</b>	NY Golf (6/18) 1,000 NY Golf (8/9/18) 1,000 NY Golf (8/31/18) 1,000 SeAh 이병준 1,500 SNUAA, Inc (남가주) 500 SNUAA, Inc (남가주) 700 T. H. & Asso. 1,000 김승호 (공대 71) 400 김승호 (12/26) 400 김민중 (1811105) 700 노명호 (공대 61) 1,000 노명호 (공대 61) 2/14 1,000 미래에셋 (5~10/2019) 1,800 발전기금 (12/6) 700 서울대병원 강남 (12/29) 1,500 서울대병원 강남 (5/30) 380 서울대병원 강남 (8/31) 380 서울메디칼 (3/15) 1,000 서울메디칼 (12/26) 1,000 서울메디칼 (4/16) 1,000 손재욱 (가정 77) 500 신응남 (농대 70) 1,200 심완식 (의대 67) 1,800 최용완 (공대 57) 100 한남체인(3/15) 1,000 한남체인(12/23) 1,000	오인환 (문리 63) 650 유재환 (상대 67) 100 윤상래 (수의 62) 5,600 이건일 (의대 62) 125 이명선 (상대 58) 500 이원섭 (농대 77) 100 임필순 (의대 54) 100 전방남 (상대 73) 200 전상호 (사대 52) 1,000 전영자 (미대 58) 350 정진수 (공대 56) 425 조형원 (약대 50) 500 최선희 (문리 69) 400 최수강 (의대 ) 100 황현상 (의대 55) 100	이현찬 (치대 75) 200 임창희 (공대 73) 100 전경철 (공대 55) 900 전희택 (의대 58) 200 정근희 (의대 66) 200 정동구 (공대 57) 200 정재훈 (공대 64) 570 정희영 (치대 58) 100 조상하 (치대 64) 125 조한원 (의대 57) 100 최은관 (상대 64) 300 하기환 (공대 66) 200 하선호 (치대 81) 200	정정욱 (의대 60) 1,400 정태영 (문리 71) 600 정혜숙 (간호 66) 65 최선희 (의대 69) 200 최찬혁 (의대 57) 500 최홍균 (공대 69) 2,000	유영준 (의대 70) 200 이문형 (공대 46) 100 이영목 (공대 59) 200 이인욱 ( ) 25 장효열 ( ) 100 최준호 (공대 60) 25 한의생 (수의 60) 200	
<b>총동창회 보조금</b>	3,000		<b>라스베가스</b>			
<b>총동창회 오찬 협찬</b>	3,000		윤우용 (공대 65) 500	<b>워싱턴 주</b>		
<b>업소특 광고비</b>	강호석 (상대 81) 480 김성래 (치대 76) 480 김순주 (치대 ) 480 김원탁 (공대 65) 480 김일영 (의대 65) 240 김창수 (약대 64) 480 김 폴 (수의 81) 480 남옥현 (경영 84) 480 독고원 (공대 65) 240 박종효 (의대 79) 480 박희진 (농대 78) 480 서동영 (사대 60) 480 석창호 (의대 66) 240 신동국 (수의 76) 720 신응남 (농대 70) 240 신혜원 (사대 81) 480 윤달용 (공대 69) 480 염동해 (농대 74) 480 윤세웅 (의대 ) 240 이경림 (상대 64) 720 이경희 (인문 83) 240 이병준 (상대 55) 480 이수호 (보건 69) 480 이종모 (간호 69) 480 이준영 (치대 74) 720 이창석 (의대 72) 400 임낙균 (약대 64) 480 장 준 (인문 85) 480 정세근 (자연 82) 240 정수만 (의대 66) 240 정정우 (수의 74) 240 정재훈 (공대 64) 720 주기목 (수의 68) 240 조임현 (간호 72) 480 지용민 (수의 61) 240 최무식 480 한태호 (인문 75) 480 미래에셋 240 아주관광 Discount 상품권 협찬 S.B. Foot Clinic 480	강호석 (상대 81) 480 김성래 (치대 76) 480 김순주 (치대 ) 480 김원탁 (공대 65) 480 김일영 (의대 65) 240 김창수 (약대 64) 480 김 폴 (수의 81) 480 남옥현 (경영 84) 480 독고원 (공대 65) 240 박종효 (의대 79) 480 박희진 (농대 78) 480 서동영 (사대 60) 480 석창호 (의대 66) 240 신동국 (수의 76) 720 신응남 (농대 70) 240 신혜원 (사대 81) 480 윤달용 (공대 69) 480 염동해 (농대 74) 480 윤세웅 (의대 ) 240 이경림 (상대 64) 720 이경희 (인문 83) 240 이병준 (상대 55) 480 이수호 (보건 69) 480 이종모 (간호 69) 480 이준영 (치대 74) 720 이창석 (의대 72) 400 임낙균 (약대 64) 480 장 준 (인문 85) 480 정세근 (자연 82) 240 정수만 (의대 66) 240 정정우 (수의 74) 240 정재훈 (공대 64) 720 주기목 (수의 68) 240 조임현 (간호 72) 480 지용민 (수의 61) 240 최무식 480 한태호 (인문 75) 480 미래에셋 240 아주관광 Discount 상품권 협찬 S.B. Foot Clinic 480	오인환 (문리 63) 650 유재환 (상대 67) 100 윤상래 (수의 62) 5,600 이건일 (의대 62) 125 이명선 (상대 58) 500 이원섭 (농대 77) 100 임필순 (의대 54) 100 전방남 (상대 73) 200 전상호 (사대 52) 1,000 전영자 (미대 58) 350 정진수 (공대 56) 425 조형원 (약대 50) 500 최선희 (문리 69) 400 최수강 (의대 ) 100 황현상 (의대 55) 100	이현찬 (치대 75) 200 임창희 (공대 73) 100 전경철 (공대 55) 900 전희택 (의대 58) 200 정근희 (의대 66) 200 정동구 (공대 57) 200 정재훈 (공대 64) 570 정희영 (치대 58) 100 조상하 (치대 64) 125 조한원 (의대 57) 100 최은관 (상대 64) 300 하기환 (공대 66) 200 하선호 (치대 81) 200	정정욱 (의대 60) 1,400 정태영 (문리 71) 600 정혜숙 (간호 66) 65 최선희 (의대 69) 200 최찬혁 (의대 57) 500 최홍균 (공대 69) 2,000	유영준 (의대 70) 200 이문형 (공대 46) 100 이영목 (공대 59) 200 이인욱 ( ) 25 장효열 ( ) 100 최준호 (공대 60) 25 한의생 (수의 60) 200
<b>후원금</b>	총동창회(서울) 5,985	남가주 3,000 뉴욕 3,000 시카고 2,400 워싱턴 DC 2,000 필라델피아 1,500 뉴잉글랜드 1,000 미네소타 600 북가주 600 김명철 (문리 60) 600 김병숙 (보건 65) 200 김승호 (공대 71) 400 김은섭 (의대 53) 100 김재경 (농대 58) 200 김해암 (의대 53) 200 류재은 (미대 71) 200 문석면 (문리 52) 200 박경원 (미대 66) 25 박우선 (공대 68) 40 박상원 (문리 54) 100 방준재 (의대 63) 200 배명애 (간호 47) 675 배정희 (사대 54) 200 서 랑 (의대 63) 200 신응남 (농대 70) 2,000 양기명 (약대 49) 25 이경림 (상대 64) 185 이문선 (의대 52) 725 이진구 (농대 60) 1,100 이재원 (법대 60) 350 이준형 (공대 48) 3,000 전재우 (공대 61) 200 정인식 (상대 58) 200 정창동 (간호 45) 75 조명애 (간호 47) 375 조정현 (수의 58) 100 최한용 (농대 58) 500 한인섭 (약대 63) 500 허선행 (의대 58) 600 허유선 (가정 83) 100	남가주 3,000 뉴욕 3,000 시카고 2,400 워싱턴 DC 2,000 필라델피아 1,500 뉴잉글랜드 1,000 미네소타 600 북가주 600 김명철 (문리 60) 600 김병숙 (보건 65) 200 김승호 (공대 71) 400 김은섭 (의대 53) 100 김재경 (농대 58) 200 김해암 (의대 53) 200 류재은 (미대 71) 200 문석면 (문리 52) 200 박경원 (미대 66) 25 박우선 (공대 68) 40 박상원 (문리 54) 100 방준재 (의대 63) 200 배명애 (간호 47) 675 배정희 (사대 54) 200 서 랑 (의대 63) 200 신응남 (농대 70) 2,000 양기명 (약대 49) 25 이경림 (상대 64) 185 이문선 (의대 52) 725 이진구 (농대 60) 1,100 이재원 (법대 60) 350 이준형 (공대 48) 3,000 전재우 (공대 61) 200 정인식 (상대 58) 200 정창동 (간호 45) 75 조명애 (간호 47) 375 조정현 (수의 58) 100 최한용 (농대 58) 500 한인섭 (약대 63) 500 허선행 (의대 58) 600 허유선 (가정 83) 100	강제드 (사대 60) 400 곽선성 (공대 61) 225 곽승용 (의대 65) 200 김명철 (문리 60) 600 김병숙 (보건 65) 200 김승호 (공대 71) 400 김은섭 (의대 53) 100 김재경 (농대 58) 200 김해암 (의대 53) 200 류재은 (미대 71) 200 문석면 (문리 52) 200 박경원 (미대 66) 25 박우선 (공대 68) 40 박상원 (문리 54) 100 방준재 (의대 63) 200 배명애 (간호 47) 675 배정희 (사대 54) 200 서 랑 (의대 63) 200 신응남 (농대 70) 2,000 양기명 (약대 49) 25 이경림 (상대 64) 185 이문선 (의대 52) 725 이진구 (농대 60) 1,100 이재원 (법대 60) 350 이준형 (공대 48) 3,000 전재우 (공대 61) 200 정인식 (상대 58) 200 정창동 (간호 45) 75 조명애 (간호 47) 375 조정현 (수의 58) 100 최한용 (농대 58) 500 한인섭 (약대 63) 500 허선행 (의대 58) 600 허유선 (가정 83) 100	정정욱 (의대 60) 1,400 정태영 (문리 71) 600 정혜숙 (간호 66) 65 최선희 (의대 69) 200 최찬혁 (의대 57) 500 최홍균 (공대 69) 2,000	유영준 (의대 70) 200 이문형 (공대 46) 100 이영목 (공대 59) 200 이인욱 ( ) 25 장효열 ( ) 100 최준호 (공대 60) 25 한의생 (수의 60) 200
<b>특별사</b>	박준섭 (약대 63) 200 이석호 (공대 78) 200 최충권 (문리 59) 200	남가주 3,000 뉴욕 3,000 시카고 2,400 워싱턴 DC 2,000 필라델피아 1,500 뉴잉글랜드 1,000 미네소타 600 북가주 600 김명철 (문리 60) 600 김병숙 (보건 65) 200 김승호 (공대 71) 400 김은섭 (의대 53) 100 김재경 (농대 58) 200 김해암 (의대 53) 200 류재은 (미대 71) 200 문석면 (문리 52) 200 박경원 (미대 66) 25 박우선 (공대 68) 40 박상원 (문리 54) 100 방준재 (의대 63) 200 배명애 (간호 47) 675 배정희 (사대 54) 200 서 랑 (의대 63) 200 신응남 (농대 70) 2,000 양기명 (약대 49) 25 이경림 (상대 64) 185 이문선 (의대 52) 725 이진구 (농대 60) 1,100 이재원 (법대 60) 350 이준형 (공대 48) 3,000 전재우 (공대 61) 200 정인식 (상대 58) 200 정창동 (간호 45) 75 조명애 (간호 47) 375 조정현 (수의 58) 100 최한용 (농대 58) 500 한인섭 (약대 63) 500 허선행 (의대 58) 600 허유선 (가정 83) 100	강제드 (사대 60) 400 곽선성 (공대 61) 225 곽승용 (의대 65) 200 김명철 (문리 60) 600 김병숙 (보건 65) 200 김승호 (공대 71) 400 김은섭 (의대 53) 100 김재경 (농대 58) 200 김해암 (의대 53) 200 류재은 (미대 71) 200 문석면 (문리 52) 200 박경원 (미대 66) 25 박우선 (공대 68) 40 박상원 (문리 54) 100 방준재 (의대 63) 200 배명애 (간호 47) 675 배정희 (사대 54) 200 서 랑 (의대 63) 200 신응남 (농대 70) 2,000 양기명 (약대 49) 25 이경림 (상대 64) 185 이문선 (의대 52) 725 이진구 (농대 60) 1,100 이재원 (법대 60) 350 이준형 (공대 48) 3,000 전재우 (공대 61) 200 정인식 (상대 58) 200 정창동 (간호 45) 75 조명애 (간호 47) 375 조정현 (수의 58) 100 최한용 (농대 58) 500 한인섭 (약대 63) 500 허선행 (의대 58) 600 허유선 (가정 83) 100	정정욱 (의대 60) 1,400 정태영 (문리 71) 600 정혜숙 (간호 66) 65 최선희 (의대 69) 200 최찬혁 (의대 57) 500 최홍균 (공대 69) 2,000	유영준 (의대 70) 200 이문형 (공대 46) 100 이영목 (공대 59) 200 이인욱 ( ) 25 장효열 ( ) 100 최준호 (공대 60) 25 한의생 (수의 60) 200	
<b>브레인 네트워크 후원금 (2018/7/1~2019/6/30)</b>	신응남 (농대 70) 1,000 윤상래 (수의 62) 3,000 최찬혁 (의대 57) 500	남가주 3,000 뉴욕 3,000 시카고 2,400 워싱턴 DC 2,000 필라델피아 1,500 뉴잉글랜드 1,000 미네소타 600 북가주 600 김명철 (문리 60) 600 김병숙 (보건 65) 200 김승호 (공대 71) 400 김은섭 (의대 53) 100 김재경 (농대 58) 200 김해암 (의대 53) 200 류재은 (미대 71) 200 문석면 (문리 52) 200 박경원 (미대 66) 25 박우선 (공대 68) 40 박상원 (문리 54) 100 방준재 (의대 63) 200 배명애 (간호 47) 675 배정희 (사대 54) 200 서 랑 (의대 63) 200 신응남 (농대 70) 2,000 양기명 (약대 49) 25 이경림 (상대 64) 185 이문선 (의대 52) 725 이진구 (농대 60) 1,100 이재원 (법대 60) 350 이준형 (공대 48) 3,000 전재우 (공대 61) 200 정인식 (상대 58) 200 정창동 (간호 45) 75 조명애 (간호 47) 375 조정현 (수의 58) 100 최한용 (농대 58) 500 한인섭 (약대 63) 500 허선행 (의대 58) 600 허유선 (가정 83) 100	강제드 (사대 60) 400 곽선성 (공대 61) 225 곽승용 (의대 65) 200 김명철 (문리 60) 600 김병숙 (보건 65) 200 김승호 (공대 71) 400 김은섭 (의대 53) 100 김재경 (농대 58) 200 김해암 (의대 53) 200 류재은 (미대 71) 200 문석면 (문리 52) 200 박경원 (미대 66) 25 박우선 (공대 68) 40 박상원 (문리 54) 100 방준재 (의대 63) 200 배명애 (간호 47) 675 배정희 (사대 54) 200 서 랑 (의대 63) 200 신응남 (농대 70) 2,000 양기명 (약대 49) 25 이경림 (상대 64) 185 이문선 (의대 52) 725 이진구 (농대 60) 1,100 이재원 (법대 60) 350 이준형 (공대 48) 3,000 전재우 (공대 61) 200 정인식 (상대 58) 200 정창동 (간호 45) 75 조명애 (간호 47) 375 조정현 (수의 58) 100 최한용 (농대 58) 500 한인섭 (약대 63) 500 허선행 (의대 58) 600 허유선 (가정 83) 100	정정욱 (의대 60) 1,400 정태영 (문리 71) 600 정혜숙 (간호 66) 65 최선희 (의대 69) 200 최찬혁 (의대 57) 500 최홍균 (공대 69) 2,000	유영준 (의대 70) 200 이문형 (공대 46) 100 이영목 (공대 59) 200 이인욱 ( ) 25 장효열 ( ) 100 최준호 (공대 60) 25 한의생 (수의 60) 200	
<b>광고비</b>	DUO Info. 1,200 DUO Info. 400 DUO Info. (10) 4					



동창회비 (2차 회기: 2018. 7. 1 ~ 2019.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 표: 차기 1차 회기까지 내신 분

Table with 4 columns listing members and their contribution amounts. Includes names like 박원준, 김경수, 김동준, etc., and their respective amounts.

동창회비 (1차 회기: 2019. 7. 1 ~ 2020.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 표: 2차 회기까지 내신 분

Table with 4 columns listing members and their contribution amounts. Includes names like 전병택, 정태훈, 최용석, etc., and their respective amounts.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Table with 4 columns: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Includes checkboxes and dollar amounts.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USA.

보낼 곳: SNUAA-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 Suite UL-2 Flushing, NY 11358 | Tel: 718-463-3131 Email: news@snuaa.org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서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Includes fields for E-mail and 주소.



미주 동문 업소록

**CA 남가주**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poration**  
김경무 공인회계사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81), 김낙구(상대67), 강동순(법대59)  
Tel. (213) 380-5060 (LA)  
(714) 530-3630 (Garden Grove, CA)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 Associates, AC**  
장 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272-2460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3580 Wilshire Blvd., Suite 900, LA, CA 90010

**임춘택 공인회계사**  
(상대 68)  
Tel. (213) 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Kim & Hwang C.P.A.s**  
김원철 (농대)  
Tel. (213) 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KOOG WON KWUN CPA & ASSO, INC**  
권국원 (공대)  
Tel. (213) 480-0070 /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os Angeles, CA 90005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Haitai Inc.**  
정정우 (수의 74)  
Tel.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의료 / 약국**

**VIP 성형외과**  
최광휘 (의대 70)  
Tel. 323-965-1717 / Fax) 323-965-1855  
4160 Wilshire Blvd., 2nd floor, LA, CA 90010  
akchoi52@gmail.com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 #103, LA, CA 90006  
drcchung@yahoo.com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정수만 안내과.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CareMax Pharmacy**  
Chang H. Yoo, RPh./ Dr. 유창호 (약대 74)  
California Korean-American Pharmacists Association.  
Cell: 909-229-7777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Seoul Medical Group ★**  
차민영 (의대 76)  
Tel: 213-480-7770  
(877) 764-1405  
520 S. Virgil Ave., #103, LA, CA 90006

**나성약국 ★**  
임낙균 (약대 64)  
Tel: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vd., #118, LA., CA 90006

**치과**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우주개발 / 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roessa, CA 90630  
jchung@taycoeng.com / www.taycoeng.com

**Leedco Engineers, Inc.**  
Dr. Lee, Chong Do. Dennis  
이종도 (공대 66)  
Tel: (626)448-7870 / Fax: (626)448-3955  
leedco@aol.com  
3870 Baldwin Avenue, El Monte, CA 91731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O) (818) 514-6780 (M) (818) 720-2373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el.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 (909) 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의대 64)  
Tel. (951) 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한태호 변호사 (인문 75)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 83)  
Tel. (213) 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E-mail: iminusa@iminusa.net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Jennie Lee 이종묘 (간호대 69) Realtor  
Tel. (714) 396-062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cee@gmail.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el: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기타**

**Turbo Air, Inc. ★**  
서치원 (공대 69)  
Tel: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한국트로피 / 한국타올사**  
박양중 (문리대 61)  
Tel. (213)380-2775  
3475 W. 8th St., #100  
Los Angeles, CA 90005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rdino, CA 9240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 (간호대 72)  
Tel.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 Inc.**  
최경석 (사대 80)  
Direct: 213-262-3805, T: 213-262-3800,  
F: 213-262-3810, Mobile: 213-952-9911  
3701 Wilshire Blvd., Suite 101, LA, CA 90010  
kyungsuk.choi@miraeassetusa.com

**운송 / 유통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 / 광관도매)  
이병준 (상대 55)  
Tel. (949) 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CA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Tel. (510) 224-0760  
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  
www.2makes1.com / 1durihana@gmail.com

**GA 조지아**

**Wesley & Associates, CPA**  
윤태우  
Tel: (770) 451-1850  
3700 Crestwood Pkwy, Suite 380,  
Duluth, GA 30096

**PA 필라델피아**

**건축**

**Timothy Haahs & Assoc.**  
손재욱 (생활과대 77)  
Tel.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광고주를 모십니다.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ASSI Plaza)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el. (610) 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NY / NJ (뉴욕 / 뉴저지)**

**공인회계사**

광고주를 모십니다.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el.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 (농대 70)  
Tel: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el.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el. (201) 666-2828  
570 Piermont Rd. Closter Commons # C1  
Closter, NJ 07624

**내과**

**백승원 위장내과**  
ANDREW S. BAIK M.D.  
백승원 (의대 73)  
Tel. (201) 302-9774, (732) 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Chang Ho Suk, M.D.  
석창호 (의대 66)  
Tel.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광고주를 모십니다.

**이창석 내과**  
Chang Suk Lee, M.D.  
이창석 (의대 72)  
Tel. (718) 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재활의학**

**김치갑 카이로프랙**  
COMPREHENSIVE PAIN THERAPY  
CENTER  
김치갑 (의대 73)  
Tel. (201) 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통증 및 재활의학병원**  
Seung K. Kim, M.D.  
김승관 (의대 70)  
Tel. (718) 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비뇨기과**

**윤세웅 비뇨기과**  
Richard Sei-Oung Yoon, M.D. Ph.D. D.D.  
윤세웅  
Tel. (718) 335-3333  
75-21 Broadway, #1, Elmhurst,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알러지**

**이혁엽 알러지 전문의**  
Hyok Yup Lee, MD. F.A.  
이혁엽 (의대 73)  
Tel. (201) 568-3800, (718) 321-7366  
385 Sylvan Ave., E.C., NJ 07632  
144-24 37th Ave., Room #LD, Flushing, NY 11354

**소아과**

**박범열 소아과**  
Beum Yul Park, M.D.  
박범열 (의대 75)  
Tel. (718) 229-1188, (718) 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호 소아과**  
C. Thomas Park, M.D.  
박종호 (의대 79)  
Tel. (201) 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 (보건대 69)  
Tel. (718) 353-6207  
36-32 Union St. #3F Flushing, NY 11354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 81)  
Tel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MD-VA 워싱턴 DC**

**식품 / 음식점**

**우래옥**  
백행남 (문리 60)  
Tel. 703-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MD-VA 워싱턴 DC**

**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엔지니어링 컨설팅**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el. (703) 489-2474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www.faclan.com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el. (503) 648-0775  
**www.flonomix.com**

광고주를 모십니다.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5대 미주동창회

**역대회장**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 · 오홍조 (차) · 이영목 (공) · 이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종 (상) · 오인환 (문) · 손재욱 (가정) · 명예회장: 윤상래 (수)

**제15대 회장: 신용남 (농)**  
고문: 박종수 (수), 주종광 (약)

자기회장: 노명호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부위원장: 조달훈 (사), 박영철 (농)  
Corporate Counselor: 최형무 (법)

**집행부**  
사무총장: 이창길 (자연) 대리  
총무 국장: 문현호 (음)  
재무 국장: 한경진 (음)  
IT 국장: 이창길 (자연)  
섭외 / 홍보 국장: 유시영 (문)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특별 사업국장: 허유선 (가정)

**회보 발행인: 신용남 (농), 고문:**  
편집장: 김원영 (미), 편집 고문: 곽상희 (문), 이희만 (간)  
편집 위원:  
한경수 (문), 추재욱 (의), 최철용 (농), 연봉원 (문), 최한용 (농)  
조달훈 (사), 이수호 (보), 이창길 (자), 허유선 (가), 백옥자 (음)  
홍선례 (음), 문현호 (음), 한경진 (음)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허유선 (NY), 백옥자 (LA)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김 영 (수), 김해암 (의), 정태영 (문), 박평일 (농), 고병철 (법), 백 순 (법), 장동만 (문), 김장수 (약), 민경훈 (법), 유재풍 (법), 연봉원 (문), 이재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완 (공), 하용출 (문), 김홍묵 (문), 김재훈 (공), 김지영 (사), 이종호 (인)

**회칙 위원회: 위원장 조화연 (음)**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조정현 (수), 이민연 (법), 한재은 (의), 함은선 (음)

**미주동창회 후원위원회: 위원장**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고문 박종수 (수)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목 (수)  
나눔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공)

**장학 위원회: 위원장: 신용남 (농), 부위원장: 김승호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강에드워드 (사)

**포상 위원회: 위원장 신용남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신용남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감사: 김명승 (상)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한귀희 (미대 68)	805-300-7977 khahn@4apec.com	Feb-Jan
	자기회장	민일기 (약대 69)	dauidmin920@gmail.com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곽준경 (법대 75)	650-656-7683 joon.kwag@gmail.com	Jan-Dec
	자기회장			
뉴욕 NY/NJ	회장	조상근 (법대 69)	201-913-0565 amcoinc@msn.com	July-Jun
	자기회장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이강원 (공대 66)	401-369-1565 kwaynelee@gmail.com	Jul-Jun
	자기회장			
북텍사스 LA/DALLAS	회장	강성호 (수의 81)	214-215-4447 oah9999@yahoo.com	Jan-Dec
	자기회장			
룩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최용문 (공대 77)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자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송세진 (치대 78)	612-930-7360 sejinsong@gmail.com	Jan-Dec
	자기회장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신옥인 (농대 87)	619-726-7820 wookin.shin@cbpnt.com	Nov-Oct
	자기회장			
시카고 IL/IN/WI/MI	회장	김병윤 (문리 65)	847-951-3297 jacobkimby@gmail.com	Jan-Dec
	자기회장	장윤일 (공대 60)	630-305-8792 ychang@anl.gov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자기회장			
앨라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 (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자기회장			
오레곤 OR/ID	회장	전병택 (상대 65)	503-253-2222 bryanchon@gmail.com	Jan-Dec
	자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자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정병희 (공대 71)	301-661-9227 paulchung5@gmail.com	Jul-Jun
	자기회장	박상근 (법대 75)	703-425-9390 sangkeunpark@gmail.com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류성렬 (공대 72)	425-786-4766 sungyul04@comcast.net	Jan-Dec
	총무	임현민 (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설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자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주지영 (문리 66)	706-338-4520 jane.chu.ga@gmail.com	Jan-Dec
	자기회장	공영식 (사대 79)	770-880-5816 youngskong@yahoo.com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자기회장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조정현 (수의 58)	856-685-9762 jcac4610@gmail.com	Jul-Jun
	자기회장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정치영 (법대 76)	305-665-1961 cychyung@gmail.com	Jan-Dec
	자기회장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공대 85)	919-913-5570 wschee@gmail.com	
	자기회장			
커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자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al.gov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 (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틀랜드 IA/MO/KS/NE/AR/OK	회장	오명순 (가정 69)	913-709-2334 msoonbae@gmail.com	Sep-Aug
	자기회장	이치현 (약대 77)	913-814-9452 leeche@umkc.edu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동 (상대 70)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권오을 (상대 56)	604-273-1111 y.kwon@griffith.edu.au	Jan-Dec
	부회장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종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제28차 평의원회의와 서울대 미주동창회 "Summer Fantasy"의 성공적인 개최를 동문 여러분과 함께 축하하며 제15대 미주동창회의 힘찬 출범을 기원합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 제15대 신용남 회장 및 임원 일동



- 투자를 통해 성장한 기업, 미래에셋이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 미래에셋에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다양한 투자 기회를 경험하세요.

Services offered Wealth Management and Investment Banking

**최경석(사대 80)**  
상담 및 문의 (213) 262-3800  
(213) 952-9911  
3701 Wilshire Blvd., Suite 101, Los Angeles, CA90010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 Inc. is a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This message is solely for informational purposes. Advisory services are only offered to clients or prospective clients where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 Inc. and its representatives are properly licensed or exempt from licensure. Past performance is no guarantee of future returns. Investing involves risk and possible loss of principal capital. No advice may be rendered by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 Inc. unless a client service agreement is in place. Member FINRA, SIPC.

since 1999 **듀오USA**

결혼해 듀오

**www.duouusa.net 213-383-2525(LA) 201-242-0505(NY)**



Bring the Salon Home  
**KISS**<sup>®</sup>

# 아름다운 세상, **KISS**가 이어갑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뷰티전문기업으로 전세계 더 많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책임지는 기업으로 **KIS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www.kissusa.com](http://www.kissusa.com)

김광호 (문리 62), 신규천 (상대 73), 한규상 (미대 84), 김영훈 (공대 93)